

세계유산연구

Journal of World Heritage

제 2권 1호 2016년 8월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제도적 기반과 쟁점 분석
..... 김 귀 배 / 1

10-20세기 동아시아 국립 최고 고등교육기관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망과 전략..... 김 수 정 / 15

세계유산 화성의 보존관리에 있어 기록자료 활용 방안
..... 오 선 화 / 33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
..... 한경선 · 김숙진 / 49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제도적 기반과 쟁점 분석

김 귀 배*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Issues relating to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Kim, Kwibae*

초록: 유네스코는 인류 문화의 주요 전승 수단인 기록물들이 훼손 및 소멸 위기에 처해있음에 주목하여 1992년부터 세계 기록유산사업(MOW: Memory of the World)을 추진해 왔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 107개국 및 6개 단체의 348개 기록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성과를 보면 세계기록유산사업이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기록유산사업은 24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여전히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 갈수록 기록유산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제도적 취약점을 염두에 두고 세계기록유산사업의 국제적 추이, 법적지위와 한계, 인적 체계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이러한 한계점이 현실에서 어떠한 국제적 갈등으로 어떻게 표출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 결과로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세계기록유산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합의와 국내 기록유산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세계기록유산, 세계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유네스코, 유산등재

Abstract: UNESCO established the Memory of the World (MOW) programme in 1992, noting that many items of documentary heritage, which is the main transmission method for humanity's culture, were in danger of destruction and dissipation. As of June 2016, 348 items of documentary heritage from 107 countries and 6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have been inscribed o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MOW Register). This level of achievement in the inscription of heritage under the programme is an indicator that the MOW programme has dramatically raised international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of documentary heritage. However, although it has been 24 years since the programme was established, the programme is still institutionally weak and faces many challenges in terms of its operational process. As international interest in the MOW programme has increased, political difficulties in relation to documentary heritage have also gradually appeared. While noting the institutional weaknesses of the MOW programme, this thesis discusses international trends within the programme, the programme's legal status and limits, and its human resources structures, as well as discussing some international case studies that show how such issues and problems of the MOW manifest in reality. This paper also includes some suggestions of ways to develop the MOW programme and its system of operation, with the ultimate aim of contributing to the shaping of international agreement and establishment of national policies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MOW programme.

Key Words: Memory of the World, World Heritage, Documentary Heritage, UNESCO,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Register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박사과정(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darongi7@gmail.com)

1. 서론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인류 문화의 주요 전승 수단인 기록물들이 훼손 및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에 주목하여 1992년부터 세계기록유산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것은 주로 고서, 지도, 필름과 같이 우리 인류가 반드시 기억해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기록물들을 선정하는 일종의 인증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우선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회의를 통해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정, 그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세계기록유산사업은 매년 회의에서 선정된 목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존 수단 및 효과적인 이용 수단을 개발하고 기록 유산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기억(MOW: Memory of the World) 사업’으로도 불린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대중적인 기록유산에는 ‘구텐베르크 성경’이나 ‘안네의 일기’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과 <유교책판>이 등재되면서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등과 함께 모두 13개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지역 세계기록유산 최다 보유국이고 전 세계로 따져도 네 번째로 많은 세계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사업은 그간 국제법에 근거한 사업이 아니라는 취약점 때문에 세계유산이나 무형유산 사업에 비해 각국 정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중·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세계기록유산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5년 10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2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일본정부의 역사적 왜곡이라는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신청한 난징대학살 기록물이 등재되면서 기록유산사업이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의 세계기록유산 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나 관련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2009년 이전에는 소수의 논문(박성진, 2008)이나 학술지에 수록된 기고 등이 있었으나 그나마도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과 기록유산의 디지털화나 정보화 사업에 대한 논문들이 드물게 발간되어 왔을 뿐이다. 앞으로 민감한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근대기록물을 둘러싸고 관련 국가들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은 세계기록유산제도가 유네스코가 강조하고 있는 투명성과 대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제도 개선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세계기록유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록유산 사업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세계유산이나 무형유산과 같은 기존 유네스코협약과 비교해서 분석해 보고 향후 기록유산사업의 제도화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정리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기록유산제도에 맞는 한국의 기록유산 정책의 기초 인식과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그 한계점과 쟁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탄생과 발달과정, 운영상의 특징을 고찰하고 등재절차와 기준,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국제적 추이를 살펴보고 국가별, 지역별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유네스코가 기존에 채택한 세계유산협약과 무형유산협약과의 비교를 통해 기록유산사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를 살펴보고 기록유산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협약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이행을 위해 어떤 인적, 재정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기록유산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과 분쟁사례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우선, 세계기록유산사업의 법적 기반이 되는 유네스코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그리고 실질적인 심의기구인 집행위원회의 공식정책 문서를 살펴봄으로써 기록유산제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운영지침과 등재지침서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사무국, 국

제자문위원회, 지역위원회, 국가위원회 등 세계기록유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취약점을 살펴보았다.

둘째, 세계기록유산사업과 관련된 각종 정부간 전문가회의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 다양한 회의에서 발간한 회의결과물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세계기록유산의 주요 등재 순위, 지역별 등재 현황, 연도별 등재 현황, 지역별 국제자문위원 분포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유의한 결론도출을 시도하였다. 또한 지난 24년간 지속되어 온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한 중요한 심의기관인 국제자문위원회 회의록도 참고하였다.

셋째, 공식적인 정책문서 이외에도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유관기관의 웹사이트와 기고문 등도 참고하였으며, 국제자문위원회 및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참석을 통한 전문가 발언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기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기록물을 행정업무에 수반된 부산물로만 이해한 탓에 세계유산에 비해 그 관심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기록유산이 서책과 문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서지학적인 관점에서 이를 연구하거나 전자화하여 대중에게 서비스하는 활용방안 위주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세계기록유산제도의 등재절차와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세계기록유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은 부족하였다.

국외에서 수행된 세계기록유산제도 연구의 경우 대다수가 유네스코에서 현장경험을 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쓰인 것으로, 연구의 형태보다는 보고서와 에세이 등의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그나마 2012년 이후에는 관련 기고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제도적 기반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의 탄생과 전개

기록유산이란 전 세계인의 ‘기록된 총체적인 기억’이라고 기술된다. 기록유산은 인간사회의 사상과 가치, 그리고 문화적 성과들의 전개과정을 묘사한 유산

으로 해석된다(Joie Springer, 2015). 그러나 다수의 국가들이 손으로 만져지는 건축물과 기념물, 그리고 고고학적 유산과 같은 유형유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장치나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보호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록유산들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인위적인 파괴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특히 기록유산은 대부분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고 쉽게 분해되는 천연재료, 합성재료 또는 유기물로 만들어져 홍수나 화재와 같은 자연 재해, 약탈, 사고 또는 전쟁과 같은 인간이 초래한 재난, 기초적 관리와 보존 작업의 소홀이나 무지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크다(유네스코, 2002).

역사적으로 보면 기록유산사업은 다른 아닌 필름 유산의 보존이 시급하다는 국제적인 인식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1895년 프랑스 파리의 그랑카페에서 루미에르 형제(Louis Lumiere)에 의해 세계 최초의 영화가 상영된 이래 필름은 제7의 예술로서 21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로 발돋움하였다. 유네스코는 평화와 관용을 주제로 필름과 관련된 여러 행사를 조직함으로써 영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요한 성과는 필름 유산에 대한 국제 청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술의 진보로 인해 점차 영화분야가 활성화되었지만 보존 인식의 부족으로 초창기 필름의 3/4 정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였다(Joie Springer, 1995).

최초의 필름은 무성영화였고, 사운드 트랙이 등장한 것도 1920년대였으며 1930년에 들어서야 컬러 영화에 대한 시도들이 있었다. 그 이후로 기술의 진보는 계속되었지만 정작 영화의 보존에 대한 문제점들은 해결되고 있지 않았다. 1930년대 첫 번째 필름 아카이브가 개인 벤처로 설립된 이래, 1938년 국제 필름아카이브연맹이 창설되고 나서야 중요한 역사적 기록으로서 필름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들이 시작되었다.

1945년 유네스코가 창설되고 나서 1980년 10월 유네스코 총회는 ‘동적 이미지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for the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of Moving Images)’을 채택하고 시청각 유산의 보존에 관한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

다. 그간 수십 세기에 걸쳐 문자정보가 국가의 유산으로 인정받았듯이 필름이 국가유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었다. 비록 필름아카이브가 수년간 존재했지만, 권고안을 통해 필름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회원국들의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다.

세계기록유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다른 중요한 계기로는 1993년 보스니아 내전의 와중에서 사라예보가 무차별 폭격을 당할 때에 유서 깊은 국립도서관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13세기부터 집적되어 온 소장도서가 모두 잿더미로 변해 버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세계의 지식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인류의 정신적 자산인 기록유산을 보존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각성에 이르렀다(서경호, 2014). 그리고 유네스코는 1995년부터 위협에 처한 기록물과 컬렉션들을 지정하여 보존함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기록유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의 목록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2) 세계기록유산사업의 개요

세계기록유산사업은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유이기에 완전히 보존 및 보호되어야 하며 그 안의 문화적 관습을 고려하여 모든 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기록유산을 확실히 보호하고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국가적, 지역적 중요성을 지닌 기록유산의 보호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사업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록유산을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제전문가들의 자문과 훈련과정 등을 통한 최상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전 세계기록유산의 보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기록유산의 사본을 만들고 디지털을 통해 복제함으로써 세계인 누구나 등재된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다. 셋째, 기록유산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장려하고, 미디어 홍보를 통해 기록유산을 알리고 그 중요성에 대한 대중인식을 확산하는 데 있다.

(1)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대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지침에서는 문서(document)를 “필기와 같은 서명이나 코드 또는 소리 그리고/혹은 기록, 사진 혹은 필름과 같은 이미지이며 움직일 수 있고, 보존가능하며, 재생산되고 복사될 수 있는 소재”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록유산(documentary heritage)이란 어떤 종류의 하나의 문서 혹은 논리적이며 연관성 있는 다수의 문서들로 구성되며, 컬렉션, 소장품, 아카이브 선호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기록유산이란 세계기록유산사업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글, 그래픽, 시청각, 디지털 등) 즉,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그 자체와 그 기록을 전달하는 매개체(carrier)로 구성된다(유네스코, 2002).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대상은 한국의 동산문화재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서적뿐만 아니라 지도, 필름, 음반, 레코드, 사진이나 수집물과 같은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포괄한다(표 1).

(2) 주요활동

세계기록유산의 기본 활동의 근간은 유네스코가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한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다. 세계유산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다는 것은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에 따라 전 세계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등록되어 보존,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세계유산은 그 유산을 소유한 나라의 주권이 충분히 존중되고 국내법이 정한 재산권을 해치지 않지만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그 유산의 보호에 국제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한 나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표 1〉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와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또는 기타 자료로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
-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non-textual materials)
-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heritage.unesco.or.kr/mow/mow_intro/)

라기보다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인류의 자산이라는 거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목록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등재로 인해 유네스코가 인정 한 세계적인 기록유산이라는 희소성과 탁월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세계기록 유산사업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임무다.

세계기록유산사업은 해당 지역 혹은 국가의 기록 유산을 지역기록유산목록, 세계기록유산목록에 등재 신청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보편적 중요성을 가진 기록유산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도를 통해 개도국의 기록유산의 가치 발굴과 적절한 보존조치 마련에 기여하고, 기록유산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내 기록유산 관련 사업, 협력 및 교육훈련을 장려하고, 기록유산국가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내 국가들에게 기록유산에 대한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경우, 43개국 중 12개국에만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을 정도로 저조한 편이다.

(3) 운영 구조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운영구조는 유네스코본부의 커뮤니케이션부문의 지식사회정보국이 사무국(Secretariat)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등재목록의 심사기구인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지역위원회(Regional Committee),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를 두고 있다. 이 중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구는 국제자문위원회로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임기 4년의 국제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며 모두 개인 자격이다. 국제자문위원회는 운영규정상 필요에 따라 부속기구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유네스코, 2002).

3) 세계기록유산의 등재기준과 등재절차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운영근거는 기록유산보호를 위한 일반지침(Memory of the World - General Guidelines to Safeguard Documentary Heritage)에 근거한다. MOW 사업 일반지침은 국제도서관협

회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의 후원 하에 Stephen Foster, Duncan Marshall과 Roslyn Russell의 도움을 받아 Jan Lyall이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이후 1997년과 1999년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의 MOW 목록의 등재기준과 등재 과정에 대한 논의 및 2000년 제2차 MOW 국제회의 등을 통해 2002년 개정판이 나왔다(Ray Edmonson, 2002). 세계의 기억사업의 목적 및 배경부터, 기본 개념, 보존과 활용의 원칙, 목록의 등재기준과 준비, 세계기록유산사업의 구조와 관리방안, 재원조달과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지침은 국제목록의 등재를 위한 선정기준에 적용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세계기록유산사업에서 등재하는 목록은 모두 세 가지로, 세계기록유산목록, 지역기록유산목록, 국가기록유산 목록이다. 이 목록들은 모두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니며 한 기록유산이 세 목록 중 하나 이상 등재될 수 있다. 즉, 한 국가의 유산이 세 가지 목록에 모두 등재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각 목록에는 위계가 없으며, 세계기록유산 목록으로 등재한 이후에 지역기록유산목록으로도 등재가 가능하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록유산의 세계적 의미와 영향력이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인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세계기록유산사업은 해당 기록유산의 문화적 중요성을 절대성이 아닌 상대성에 기반한 비교를 통하여 심사한다. 등재기준은 국제기록유산목록에 해당하는 MOW 등재기준이나, 지역기록유산목록과 국가기록유산목록에도 지역 및 국가에 적합한 논리적 다양성을 감안하여 적용된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를 위해서는 신청 유산이 진정성, 독창성 및 대체불가성 그리고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유산의 본질과 유래가 정확히 밝혀진 진품이어야 하고, 특정시대 및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손실 혹은 훼손될 경우 인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만큼 중요한 유산이어야 한다. 또한 시간, 장소, 사람, 주제와 테마, 형식과 스타일에 있어서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보조요건으로 희귀성, 완전성, 위험성 및 관리계획도 충족하여야 한다(표 2).

〈표 2〉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

등재 기준		세부 사항
주요기준	진정성	유산의 본질과 유래가 정확히 밝혀진 진품일 것
	독창성/ 대체 불가성	특정 시대 및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손실 혹은 훼손될 경우 인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만큼 중요한 유산일 것
	세계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유산의 오래됨이 아닌, 특정 시대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의 여부 • 장소: 세계사 및 문화에서 중요한 장소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 • 사람: 인류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 • 주제와 테마: 과학, 사회학, 예술 등의 발전상에 관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 형식과 스타일: 탁월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지니거나 표현 형식에 있어 중요한 표본이 되는 경우
보조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성: 내용이나 물리적 특성이 희귀한 경우 • 완전성: 온전히 하나로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 • 위험성: 유산의 보존상태가 각종 위험요소에서 안전하거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 관리계획: 유산의 중요성을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처: 세계기록유산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

세계기록유산사업은 다른 유네스코의 협약사업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등재 신청 기한도 세계유산협약이나 무형유산보호협약이 매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기록유산의 경우는 2년에 한 번 국가 당 최대 2건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두 협약이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정부만이 신청주체가 되는데 반해 기록유산의 경우는 개인이나 단체, 국가가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세계기록유산목록에 등재되더라도 계속해서 세계기록유산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등재된 기록유산이 보존 상태가 위험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등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목록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세계기록유산으로서 심각한 결격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황에 대해 사무국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이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등재소위원회에 요청한다. 만약 결격 사항이 사실일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의견을 조회하고, 답변에 따라 삭제, 보류, 또는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자문위원회가 삭제를 결정한 경우,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2016).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절차는 먼저 국내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영문 혹은 불문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사무국이 신청서가 문서로서 완결성을 지니는지 확인한 후 국제자문위원회 산하 등재소위원회에 송부하면 등재소위원회는 이를 상세히 검토한 후 의견서를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제자문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등재 여부를 심사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등재여부를 건의한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국제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등재를 최종 결정한다.

4) 세계기록유산의 등재현황과 국제적 추이

(1) 세계기록유산의 등재현황

2016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 107개국 및 6개 단체(국제단체 4곳, 민간단체 2곳)의 348개 기록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 최근 세계유산사업에서 지역별 국가별 등재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었듯이 세계기록유산사업 역시 독일, 폴란드, 영국 등 유럽지역의 국가들이 등재유산 보유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세계기록유산의 지역별 등재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유럽과 북미지역은 39개국 이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등재건수의 50.5%에 해당하는 등재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4위)과 중국(10위)이 속해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그 다음으로 많은 80건을 등재하고 있으며 아랍과 아프리카 지역은 두 지역을 합쳐도 6.7%에 불과하다. 등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지원 프로그램과 교육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불균형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국제적으로 시급한 실정이다.

연도별 등재현황을 보면 사업 초창기인 1999년부터 등재성공률이 점차 증가하다가 2007년 정점을 찍

은 이후 다시 2011년 53.3%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등재심사가 완화되었다거나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변화가 일어났다가보다는 신청대상 유산의 세계적 가치, 등재심사위원들의 선호도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등재신청건수를 살펴보면 1999년 20점이었다가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기록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한국과 같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가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기록유산사업에 초창기부터 참여하여 꾸준히 등재를 해온 결과, 현재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13점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베트남 후에(Hue)에서 개최된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총회에서 아태지역목록에 한국의 편역이 등재됨으로써 아태지역유산도 한 점 보유하게 되었다. 사업 초창기에는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고문서가 등재되었으며 2011년 『5.18 민주화기록물』의 등재를 계기로 근대기록물의 등재가 늘어나고 있다.

(2)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국제적 추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45개국 91점에 이르는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2년 뒤에는 55개국 119점으로 확대되었으며(문화재청, 2005), 2016년 107개국 348점으로 급증하였다. 초창기에는 고서 위주의 등재가 이루어졌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이 등재되었다. 등재된 유산은 인쇄매체, 필사본, 시청각 자료, 문자, 지도 및 설계도면, 비문도 있다.

세계기록유산사업 초기에는 마쇼토 마텐나다란의 고대필사본(Mashtots Matenadaran Ancient Manuscripts, 1997년), 비엔나 디오스쿠리드 필사본(Vienna Dioscurides, 1997년) 등 고대나 중세의 고문서들 위주로 신청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에릭 윌리엄스 기념문고(트리니다드토바고), 바르샤바 게토(에마누엘 링겔블룸) 기록물(폴란드) 등 근현대 기록물의 등재가 두드러지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사업 초기인 1997년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문서 형태 기록들 위주로 등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중국 전통 음악 녹음 자료(중국), 8세기 제정 러시아 지도(러시아), 수에즈 운

하에 관한 각종 기록물(이집트) 등이 대표적인 기록물이었다.

1999년에는 비문서 자료의 등재되면서 등재대상이 다양화되었다. 이 시기에 등재된 유산들로는 독일의 세계전통음악 녹음 납관, 오스트리아의 기록 모음집 등이 있다. 2001년 등재 목록의 특징은 시청각자료로 기록유산 범위가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영화 메트로폴리스, 헝가리의 칼만 티하니의 1926년 ‘라디오 스코프’ 특허출원 등이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올랐다.

2005년에는 카세트테이프 형태의 기록도 등재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와 영국의 1940년 6월 18일 대국민 호소를 들 수 있다. 2011년에는 도서, 사진, 영상물 등 더욱 다양한 형태와 양식의 기록유산이 등재되었다. 노르웨이가 신청한 ‘토르 하이여달 기록’, 러시아의 ‘톨스토이 개인 장서 및 수기, 사진, 영상 컬렉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 등재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은 멕시코의 ‘멕시코 국가 기록의 16세기~18세기 상형문자 지도, 그림과 삽화’, 베트남의 ‘레왕조와 맥왕조 왕조시험기록 비석(1442-1779)’, 독일의 ‘1886년 벤츠 특허증’ 등이 있다.

국가간 공동 등재는 2016년 5월 현재 총 33건이다. 세계기록유산은 1997년 등재를 시작한 이래 2001년까지 단독 등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3년 최초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5개국이 공동 신청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기록물이 공동 등재에 성공하였다. 그 이후에 2007년 3건, 2009년 4건, 2011년 5건, 2013년 8건, 2015년 7건이 등재되어 국가 간 공동 등재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문화유산의 공동 등재가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을 통한 세계평화 및 문화다양성 증진이라는 이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의 속성상, 심사과정에서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기인한다.

3. 세계기록유산의 제도적 한계와 쟁점

1) 세계기록유산 제도의 협약화를 위한 노력

일반적으로 협약(convention)이란 국가와 국가 간,

혹은 국제기구와 문서를 교환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일컫는다. 협약이라는 제도는 가입한 당사국들에게 법적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협약의 틀 안에서 협약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함으로써 협약의 조항들을 따르게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권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비해 일반 프로그램 사업은 협약 사업보다는 국제적인 정당성과 체계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협약 당사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국에 의한 운영보다는 자문기구 및 유네스코 사무국의 소수 인원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의 투명성 등이 낮다. 다만 시간에 따라 사업이 확장되고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협약과는 달리 정부간위원회와 같은 법적 정례회의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 및 참여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운영지침을 필요시 수정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융통성이 존재한다.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사업의 근거가 되는 협약이 만들어지고 협약이 발효한 이후에 등재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세계기록유산은 사업 시작과 동시에 사업 근거인 일반지침이 만들어졌다. 충분한 숙의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6년간의 경과를 거쳐 2002년에서야 비로소 일반지침의 수정본이 채택되면서 사업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였다. 기록유산사업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독자적인 영역을 확대한 바, 현재까지 기록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과 같은 협약사업과 달리 인력과 재정 면에서 취약한 것 또한 사실이다. 여전히 부동산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유산사업이나 무형유산사업처럼 국제규범화가 되어 있지 않아 최근 까지도 각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협약화의 문제를 최초로 주도한 국가는 폴란드이며 한·중·일간 역사 논쟁이 격화되고 있듯이 폴란드는 독일과의 역사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다. 폴란드는 기록유산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 기록유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록유산사업이 프로그램사업으로 진행되는 이유로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협약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1년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정

회원국 가입으로 인해 미국이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면서 기록유산 협약화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회원국들간 협약화는 시기상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15년 폴란드의 주도로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기록유산의 보존, 접근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in digital form)이 채택되었는데, 기존 유네스코의 다양한 협약화 사업에 비해 기록유산제도가 규범화가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제36차 총회에서 권고안이 채택되는 계기가 되었다. 권고안은 협약과 같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유네스코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네스코의 관례에 따라 권고안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4년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이 비록 협약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지만 권고안 형태로 채택되면서 여전히 협약화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번 권고안은 유네스코의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이라는 기본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다만,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작권, 공법 등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 당사국에서 원활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유네스코에서는 각 당사국의 정책결정자들을 독려하고, 기록유산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의 구상을 권유하며 권고안의 일부라도 이행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권고안의 내용이나 형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정책 결정자들에게 배포할 필요가 있다.

2) 인적 체계 및 운영의 문제점

세계기록유산사업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부서는 유네스코 지식사회국(Knowledge Society Division) 산하 보편적 접근 및 보존과(Section for Universal Access & Preservation, UAP)이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사업은 국 단위에서 지역별로 구분된 7개과 52명이 담당하는데 비해 기록유산사업은 보편적 접근 및 보존과(UAP) 총 9명중 과장 1명과 실무직원 1.5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세계유산사업이나 무형유산사업의 인력규모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국제

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등재신청건수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세계기록유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협약사업이 아니더라도 기존 유네스코 정규분담금 예산중 일부를 할당해서 기록유산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사무국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적절한 인력 확보가 요구된다.

세계기록유산사업은 인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 등재심사절차도 불투명성이 존재한다. 현행 등재심사절차는 각국의 정부, 개인이나 단체가 유네스코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양식상의 문제점이 없는지만 간단히 파악한 후, 등재소위원회(RSC: Register Sub-committee)에 검토를 요청한다. 등재소위원회의 심사는 통상 2회에 걸쳐한다. 등재소위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국제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건의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그림 1).

문제는 등재소위원회 회의 및 국제자문위원회의 등재심사가 신청주체 및 이해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심사과정의 불합리한 판단이나 정보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자문위원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판단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를 배제할 수가 없다. 또한 이해당사자가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원천적인 기회가 봉쇄당한 것이다. 물론 관련 이해당사자가 사전에 사무국을 통해 반박의견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필요한 정보가 국제자문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또한, 등재신청서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신청서에 첨부된 등재 신청대상 기록물의 세부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등재소위원회의 등재 권고 사항 및 국제자문위원회의 등재/등재불가 사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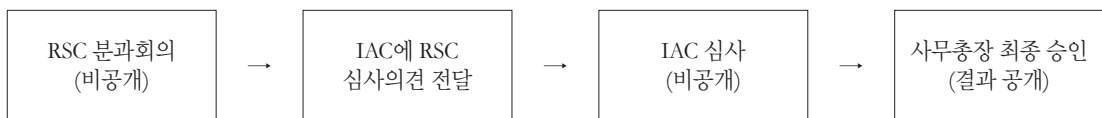
적절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의 홍보에 있어 활용되는 데 중요한 심사결과가 일관성 있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맹점이 있다.

3) 국제자문위원회 선정절차 및 구성의 불균형성

국제자문위원회는 기록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 혹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한 14명의 기록유산 보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격년으로 위원의 절반(7명)이 새로 임명된다. 등심사소위원회는 임기 9인으로 구성되며, 국제자문위원회가 국제기구 및 관련 국제NGO들과 협의하여 선발한다.

세계기록유산제도는 사업초기부터 유네스코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의 임명 사유와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원 선정을 위한 국제 전문가들의 풀이 없는 상태로 결원이 생겼을 때 사무국의 임의적인 판단하에 임명된다. 물론 국제자문위원회와 협의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다분히 사무국에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사무국의 선호도에 따라 위원들이 지역별로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국제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아랍지역 위원이 1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전문가가 주를 이루게 되면 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데 있어 타 지역에서 등재 신청된 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등재될 만한 기록유산이 등재되지 못하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불균형하게 발휘될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유사한 사례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업이 있는데 이는 유럽 및 중국 지질공원 네트워크를 모태로 시작된 사업으로, 유럽 중심의 전문가 구성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국제기구의 기본 관행인 지역배분의 균형성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록유산 사업 운영에 있어 지역 편중으로 인해 모든 지역의 지지를 받



〈그림 1〉 세계기록유산 등재심의 절차

출처: 필자 정리

는 객관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게 된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해 지역, 아시아 지역 등에서 새로운 전문가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지역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기는 하나 국제자문위원회의 지역 불균형을 제외하고도 그 임명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제자문위원을 사무국 임의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방식은, 결국 그들의 출신지역에서 발굴한 전문가가 등용되어 지역적 불균형이 해소되기 어렵고, 기록유산에 관한 국가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국가 간, 유네스코와 국가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자문위원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기록유산 제도 개편 작업반이 기록유산 제도 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유네스코사무국에서 이를 토대로 지역위원회, 국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기록유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기록유산사업에 대한 회원국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면 IAC 위원 선출과 같은 관례적 문제가 지역배분 원칙에 따라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회원국들이 기록유산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소방안을 사무국에 강하게 주문하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적, 재정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향후 유네스코 정규분담금의 일부를 세계기록유산사업에 좀 더 많이 할당하도록 주문함과 동시에 각국이 자발적 기여금을 적극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다.

4. 국제적 갈등과 분쟁 사례

1) 난징대학살 등재관련 중국-일본 간 갈등사례

세계기록유산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모은 사건은 중국의 난징대학살 기록물 등재건이다. 중국이 2014년 난징대학살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자 일본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과 사이키 아키다카(齋木昭隆) 정부차관 등이 중국에 신청 취소를 요청하고, 유네스코에 대해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이 8차례에 걸쳐 “중국 측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

중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読売新聞』 2015.10.3.). 심사직전인 10월 2일에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의 신청 건을 비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비전투원에 대한 살해와 약탈행위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중국이 제시한 희생자 숫자(3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기록한 난징군사법정 판결문)는 인정하기 곤란하며,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 중국이 유네스코의 권위를 활용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결국 2015년 10월 제12차 국제자문위원회에서 난징대학살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추천되고 최종 등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세계기록유산사업 자체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는 향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 등 일본의 부(負)의 유산이 등재될 것을 우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10월 10일 외무보도관 담화를 발표하여 “중립·공평해야 할 국제기관으로서 문제이고 매우 유감”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스가 관방장관은 10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유네스코 분담금 중단을 비롯해 세계기록유산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하고 자민당도 10월 14일 유네스코에 대한 분담금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아베 총리는 10월 15일 자민당 의원 면담에서 “2년 후에는 위안부 문제가 나온다. 지금부터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朝日新聞』 2015.10.17.).

기시다 외상은 10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정치적 이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성,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세계기록유산사업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우리나라로서 동 사업의 제도개선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였다.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보 문서의 내용에 여러 나라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국이 사전에 협의한 뒤 신청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読売新聞』 2015.11.1.).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기존에 세계기록유산사업

이 기록 자체의 가치만을 보고 기록으로 보존할 가치만 평가하는 방식에서 향후 기록의 내용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향후 기록유산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다. 한·중·일간 많은 역사적인 논란사항들이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기록유산사업을 두고 정부간 기구인 유네스코에 기록유산분야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을 기대하고 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유산사업이 세계적인 기록유산의 보존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색을 배제하고 기록물 자체의 가치만을 평가하여 등재시킬 필요가 있다.

2) 위안부 관련 한국-일본간 갈등사례 및 기록유산제도의 개편 시도

기록유산사업은 최근 한국, 중국, 일본의 기록유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점차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지난 2015년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중국이 신청한 난징대학살 기록물을 등재시키면서 증폭되었다. 일본은 난징대학살기록물의 신청서가 날조되었으며,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이번 등재가 유네스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재정지원 중단을 포함하는 주장까지 일본 내에서 제기된 바 있다. 기록유산제도가 태동할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받는 기록물의 등재문제를 예상하지 못하였던 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절차적 개선 노력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세계기록유산등재와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지난 5월말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 9개국 이 국제연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으로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라는 기록물이다. 중국은 1931년부터 1949년 사이에 만들어진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모아 '위안부 자료, 일본 제국 군대의 성노예'라는 명칭으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하였으나 실패하자 공동 등재를 신청한 것이다(세계일보 2016.6.6.). 이에 일본 우익단체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신청함으로써 맞대응에 나섰다

(YTN, 2016.6.3.) 비록 한·중·일 3국 모두 기록유산의 신청주체를 민간단체로 한정하고 정부의 개입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기록유산을 두고 새로운 외교적 갈등이 시작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이 추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개선방향은 투명성(transparency)과 대화(dialogue)라는 두 가지 핵심 주제이다. 투명성에 관해서는 잠재적인 관심국이 기록유산의 신청 자료에 대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문기구가 평가이후 등재 권고를 할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유산제도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공개하는 것과 비교된다.

대화와 관련해서는 관심국이 신청유산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경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록물에 대한 일본정부의 압력행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기록유산사업은 일반 협약사업과 달리 개인, 단체, 국가 등 신청 주체가 다양하므로 관심국이 대화를 요청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사업의 경우, 국경문제로 인해 관심국간의 대화와 동의를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기록유산의 경우는 이와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록유산의 등재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기록유산의 보존과 접근차원에서 기록유산의 고유한 가치만을 판단하는 것이지, 기록유산의 등재가 역사적 사실의 공인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난 아부다비 회의 이후에 국제자문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작업반이 구성되어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록유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국가들이 만족할 만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체제 및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였다. 특히 기록유산 사업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세계유산이나 무

형유산과 같은 기존 유네스코협약과 비교해서 분석한 뒤 향후 기록유산사업의 제도화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유네스코 주요정책문서를 토대로 세계기록유산의 탄생과 전개 과정을 알아보고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운영방식, 등재절차 및 심사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등재의 국제적 추이와 국가별, 지역별 불균형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계기록유산사업이 국제자문위원의 선발절차의 모호함, 인적구성, 지역별 불균형성, 등재유산의 유럽 편중 등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국제자문위원의 선정방식이 현행과 같이 사무국과 전·현직 국제자문위원들과의 비공식적 협의에 의해 임명될 경우, 투명성 문제가 회원국들 간에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로 인해 특정지역의 전문가가 다수를 이루게 되면 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데 있어 타 지역 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IAC 위원을 공모를 통해 임용하되 지역별 안배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등재유산 수의 지역적 불균형은 기록유산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유산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다. 아랍지역이나 아프리카지역과 같이 등재유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차원의 역량강화사업 및 인식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세계기록유산제도를 세계유산협약 및 무형유산협약과 비교하면서 국제협약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고찰해 보았다. 권고안 채택까지 회원국들의 많은 기여가 있었으나 협약화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계기록유산이 기존의 협약사업에 비해 인적,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밝혀냈고 세계유산사업과 같이 인적,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세계기록유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특히 기록유산제도 개편 요구 등 회원국들의 요청이 거세지고 있는 상태에서 담당인력이 적시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유네스코 정규분담금 예산중 일부를 전용해서 기

록유산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사무국의 인력 재조정을 통해 적절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갈등과 분쟁사례로 한·중·일간 기록유산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일본이 향후 기록유산사업의 투명성과 대화를 위해 사업의 등재절차나 과정을 개편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며, 이러한 시도가 기록유산사업의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기록유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 세계기록유산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제기하는 데 그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세계유산협약의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나 진정성, 완전성에 대해 그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보완되고 있는데 반해 세계기록유산사업의 등재기준은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향후 등재기준, 탁월성, 대체불가성 등 세계기록유산 제도가 제시한 등재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유산들에 대한 시대별, 범주별, 소장처별 분류를 통해 상세하게 분석해 본다면 향후 우리의 세계기록유산제도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기록유산사업은 그간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반면, 기록유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 갈수록 기록유산을 정치화하여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기록유산 등재에만 초점이 맞춰서 있는 상황에서 기록유산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아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 헌

- 문화재청, 2005,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매뉴얼』 83-89.
- 김성수, 2005, 27-48,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보존 현황 및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1).
- 이영진, 2001, “세계기록유산의 등록과 보존을 위한

- 법적문제 분석” 『사회과학연구』, 18(1),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77-202.
- 박성진, 200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제도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 유럽, 북아메리카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논문.
- 송정은, 2009,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의 개선방안연구 - 유럽 · 북아메리카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논문.
- 전소윤, 2012, 『한국 세계기록유산 관련 정보의 활용방안』, 경북대학교 기록학과 석사논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유네스코 MOW 아태지역훈련워크숍 자료집』
- _____, 2015, 『UNESCO Memory of the World Training Workshop for th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 회의자료』
- 서경호, 2014.7.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의 목적과 의의”, 『유네스코 뉴스』.
- 추영준, 2016.6.6, “일본軍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유산 등재 신청”, 『세계일보』, 인터넷판.
- 국제부, 2016.6.3, “日 우익단체, 위안부 자료 유네스코 기록유산 맞대응 신청” 『YTN』, TV.
- 세계기록유산아시아태평양위원회, 2012,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Working Group, Education and Research Report (MOWCAP 회의자료)』
- Joie Springer, 1995, 『Memory of the World: National Cinematic Heritage (CII-95IWS/7 Paris)』 UNESCO.
- Ray Edmonson, 2002, 『MOW 기록유산보호를 위한 일반지침(General Guideline)』.
- UNESCO, 2002, MOW General guideline 1.1.3.
- _____, 2015, 『UNESCO 총회 문서(38C/Resolution 24)』
- _____, 2013, 『IAC Chair's report, 2011-2013』
- _____, 2012, 『Memory of the World; The treasures that record our history from 1700 BC to the present day』
- _____, 2012, 『MOW Register Companion』
- _____, 2013, 『191차 UNESCO 집행이사회 자료(191EX/11 / 2013)』
- Abdelaziz Abid, 1997, ““Memory of the World’: Preserving our documentary heritage”, 『Museum International』 Vol. 49, No. 1, UNESCO: Paris, UK, 40-45.
- 네이버 지식백과 웹사이트 <http://terms.naver.com/>
문화재청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unesco.or.kr/>
유네스코 웹사이트 <http://www.unesco.org/>
유네스코 세계유산 웹사이트 <http://whc.unesco.org/>
- 교신: 김귀배,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e-mail: darongi7@gmail.com)
Correspondence: Kwibae Kim, 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05029 (e-mail: darongi7@gmail.com)
- 투 고 일: 2016년 7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7월 26일
투고확정일: 2016년 7월 29일

10-20세기 동아시아 국립 최고 고등교육기관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망과 전략

김수정*

The Prospect and the Strategies of Inscription o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of Three Imperial or Royal Universities of Eastern Asia during 10th-20th Centuries

Soo-Jeong Kim*

초록: 본 논문은 19세기 서양 열강들이 아시아로 진출하기 전까지 동아시아 세계를 형성하고 있던 핵심국가들이던 중국과 한국, 베트남 3국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 국립 교육기관인 국자감 또는 성균관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검토하고,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비추어 이들 유산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국은 유교(儒敎)를 국가 통치원리와 이념으로 수용하고, 이 유교 철학과 지식을 고도로 체화한 인재가 과거제를 통해 관료가 되어 국가를 운영해 가는 시스템을 문화교류를 통해 공고히 구축하였는데, 베이징과 서울, 하노이의 국자감 또는 성균관은 10세기 이상 지속된 그러한 시스템의 존재를 반영하는 유산들로서 세계유산 등재기준 중 최소한 (ii), (iii), (iv)를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실존하는 유적 자체와 오랜 기간 전승되어 온 제의(祭儀), 각종 문헌 자료, 시각 자료 등을 통해 그 진정성과 완전성을 입증할 수 있다. 한편 3개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이들 유사한 성격의 유산들을 세계유산에 등재 추진하려면 국가별로 각각 등재를 추진하기보다 월경 또는 초국가적 연속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것이 실효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3개 당사국들이 등재 추진과정에서부터 국가와 지방정부는 물론 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이해를 갖는 이해 관련자들까지 참여하는 상설회의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등재 구성요소들을 선별하는 것에서부터 공조된 관리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국자감, 성균관, 공묘, 문묘, 세계유산, 연속유산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spect and effective strategies of inscription o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of three imperial or royal Universities of Eastern Asia during 10th-20th centuries. The Eastern Asia which mainly consisted of China, Korea and Vietnam before the western industrialized countries expanded into it accepted Confucianism as the leading political and ethical philosophy and produced the confucian philosophers and the competent officials through the imperial or royal universities and the meritocratic civil service examination which is now remarkable for their transparent procedures. The three imperial or royal universities and confucian temples located on the capital of China, Korea and Vietnam testify the existence of this system. And they hav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s a whole and meet criteria (ii), (iii), (iv) and the conditions of authenticity and integrity. The most effective way of inscription o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of three traditional universities which were scattered among three neighboring countries is to inscribe them as transboundary or transnational serial properties. And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Parties concerned to develop a management system or mechanisms for ensuring the co-ordinated management of the separate components like workshops or working groups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key stakeholders can participate and cooperate on every level.

Key Words: The Imperial or Royal University and Confucian Temple, World Heritage, serial properties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박사과정(Ph.D. Program, 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libwatch6990@gmail.com)

1. 서론

19세기 중반 서양 열강이 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본격 확장하여 이 지역을 식민지화 하거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세력권 내에 두기 전까지 동아시아 세계는 정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국가들이 중국(中國)을 중심으로 유교(儒敎)와 조공(朝貢) 관계에 기반에 둔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질서는 7~8세기 중국의 수당(隋唐) 시대에 형성되어 19세기까지 약 10세기 이상 장기 지속되었다. 물론 최근에는 시대적 추이에 따라 중국의 각 시대별 각기 다른 정치체제가 세계사적으로 확장되어 당시 동아시아 세계질서의 운영체제로 기능하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소한 중국을 모범(模範)으로 하는 유사한 정치·경제·사회·문화체계가 그와 조공이라는 특수 관계에 있는 인접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김한규(1999)는 위 시각들을 종합하여 당시 동아시아 세계를 구성한 국가 또는 지역들에는 중국·한국·베트남·일본·요동·서역·티베트 등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들 국가 또는 지역들이 이웃한 다른 역사공동체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내적으로 각기 독자적 특성을 발전시키고 있었다고 한다.¹⁾

특히 그 가운데서도 중국·한국·베트남 3국은 정치적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 혹은 지역들과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수용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일종의 국립 최고 고등교육기관을 건립해 유교 이념과 학문을 체화(體化)한 우수 인재를 과거제(科擧制)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왕과 함께 국가를 통치하는 관료로 발탁하고 이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시스템을 공통적으로 보유, 운용하였다.²⁾ Woodside(2006)는 이러한 공통요소가 역사상 처음 나타난 시기가 당(唐, 618~907)대이고,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의 연속에서 벗어난 후의 주요 왕조들, 즉 한국의 경우는 고려(918~1392)와 조선(1392~1910), 베트남은 리(李, 1010~1225), 쩐(陳, 1225~1400), 레(黎, 1428~1788), 응우옌(阮, 1802~1945) 왕조 때라고 보고 있다. 오늘날 삼국의 수도인 베이징·서울·하노이에는 이러한 동아시아 중심 삼국에 특

유한 시스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유적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자감(國子監)³⁾’ 또는 ‘성균관(成均館)⁴⁾’이라고 불리는 국립 최고 고등교육기관이다.

이들 유적과 관련하여 주로 유적 자체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서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2006년 『서울문묘 실측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지만 유산의 세계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이들 유적을 관통하는 각 국가의 유교적 전통의 확립과 해체, 국자감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제(學校制) 또는 과거제의 제도 자체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만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있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자국의 이들 제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전근대성(前近代性)·봉건성(封建性)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다.⁵⁾ 19세기 이후 동아시아 세계가 서양이나 일본 등 열강의 침략을 받고 이들의 식민지가 되거나 영토를 점령당한 원인을 주로 과거제 또는 이와 긴밀히 제도적으로 연계된 관료제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과 미국에서는 특히 중국의 과거제(관료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그것이 가진 일부 부패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과거제는 현대사회에서도 계승되어야 하는 세계사적 자산이며, 근대의 대립항이 아니라 세계사적 관점에서 여전히 그 의의가 살아있는 인류의 소중한 역사적 경험⁶⁾이라고 인식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들 제도가 실제 기능한 현실적 공간 및 건축물들의 가치에 대한 연구로까지 연결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특정 국가의 학교제와 과거제의 도입과 발전, 해체과정 그 자체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 이루어진 이들 제도들의 교류의 산물인 세 국가의 국자감(성균감) 유적들이 각 국가 내의 국가 지정문화재 단계를 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제도 틀 내에 편입되어 세계유산 정신을 구현하는 유산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중국·한국·베트남의 국자감 또는 성균관의 공간배치 및 건축적 특징

먼저 중국·우리나라·베트남 3국의 국자감(성균관)의 역사와 건축적 특징을 비교 검토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국자감과 혼돈을 일으키기 쉬운 이른바 ‘문묘(文廟)’ 또는 ‘공묘(孔廟)’로 불리는 유적들과 ‘국자감(國子監)’의 차이를 먼저 구분하여 국자감의 개념과 성격을 보다 명료히 하고자 한다.

공묘 또는 문묘는 전세계 유교의 출발점을 이루는 공자(孔子, B.C.551~B.C.479)와 맹자(孟子) 등 공자의 핵심 제자들의 조상(彫像) 또는 위패(位牌)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가리킨다. 이러한 제사(祭祀) 공간이 오늘날 중국 내⁷⁾에만 총 130개 남아 있고, 그 중 당(唐)의 수도였던 시안(西安)의 공묘(孔廟)를 비롯해 총 52개가 우리나라의 국가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국가급문화유산보호단위(國家級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235개,⁸⁾ 베트남의 경우 하노이와 후에를 포함해 총 28개의 문묘⁹⁾가 남아 있다.

그런데 이들 제사공간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단독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설립한 관립(官立)의 학교들과 결합하여 건립되는 것이 특징인데, 베이징·서울·하노이 등 3국의 수도에 남아 있는 문묘가 국립 최고 고등교육기관, 오늘날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국자감 또는 성균관과 결합하여 건립된 것이라면, 각 지방에 세워진 문묘들은 국자감 또는 성균관의 하위에 놓인 중등 정도의 교육기관, 중국의 경우라면 부학(府學), 우리나라의 경우는 향교(鄕校)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묘나 문묘는 독립적 공간이 아니라 3국의 관립학교의 권위와 위상을 보여주고,¹⁰⁾ 관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유교라는 공통의 분모로 묶는 통합적 기능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가 있다.

한편, 국자감 또는 성균관은 각 국가가 전국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인 수도(首都)에 조성한 단 하나의 국립 최고(最高) 교육기관을 의미하며, 이들은 모두 공묘 또는 문묘를 그 영역 안에 품고 있다. 따라서 공묘·문묘보다는 규모도 크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공간임

을 알 수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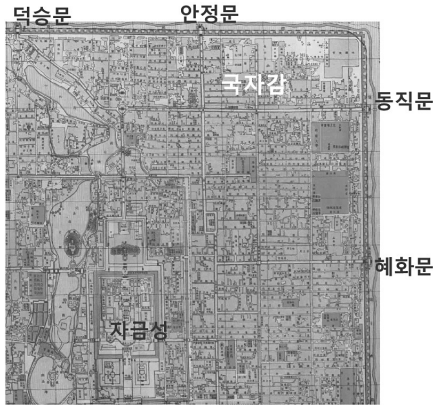
국자감 또는 성균관이 각 국가의 왕조(王朝)마다 전국적으로 수도에만 유일하게, 당대(當代)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장인들에 의해 가장 큰 규모로, 그리고 격식을 갖추어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그 가치와 규모 면에서 지방에 건립되었던 여타의 관립학교들을 압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하에서는 중국, 우리나라, 베트남의 수도에 유존하고 있는 국자감 또는 성균관의 세계사적 가치와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검토하기 전에 그 역사 및 현존하는 유적의 배치양상 및 건축적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 베이징의 국자감

우리나라 성균관과 베트남의 국자감의 원류(原流)가 되는 중국의 국자감부터 살펴보면, 국자감은 원래 수당(隋唐: 581~970) 시대에 과거제와 결합하여 최초 조성되고, 송대(宋代: 960~1279)에 가장 성(盛)했으며, 원대(元代: 1271~1368)와 명청(明清: 1368~1912) 시대에는 전체적으로 쇠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수·당·송대의 국자감 유적은 남아 있지 않다. 당(唐)의 수도였던 시안(西安)의 경우 문묘가 남아있어 국자감 또한 유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나 남아 있지 않다. 원래 국자감과 함께 있던 문묘를 송대(宋代)인 송녕(崇寧) 2년(1103) 당시 부성(府城)의 동남쪽, 오늘날 비림박물관(碑林博物館) 부지로 이전하여 부학(府學)과 통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안에 남아 있는 것은 당대의 국자감이 아니라 송대의 부학과 문묘인 것이다.

오늘날 중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자감은 원(元)·명(明)·청(淸) 등 세 왕조의 수도였던 베이징에 있는 국자감(國子監)이다. 국자감은 황성(皇城)인 자금성(紫禁城)의 동북쪽, 그리고 베이징 구(舊)도성(都城) 성문 중 하나인 안정문(安定門) 안의 성현가(成賢街)에 자리하고 있다. 원나라 때인 지원(至元) 24년(1287)에 처음 건설되었고 명대 영락(永樂) 연간과 정통(正統) 연간에 대규모로 보수 및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청(淸) 건륭(乾隆) 48년(1783) 국자감의 핵심건축물인 ‘벽옹(辟雍)’이 건립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배치형태가 완성되었다.



〈그림 1〉 1941년 북평시전도 상의 국자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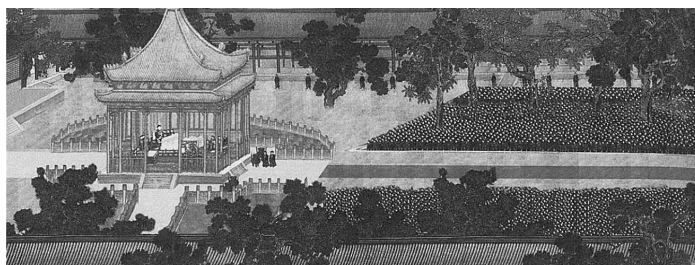


〈그림 2〉 베이징의 국자감과 공묘의 배치 양상

베이징의 국자감은 “좌묘우학(左廟右學)”이라는 중국의 전통적 규범에 따라 건립되었다.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본다는 전제하에 국자감은 오른쪽에, 공묘는 국자감의 동쪽인 왼쪽으로 자리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국자감과 공묘 두 영역을 합해 총 49,000㎡이다. 그 중 국자감은 크게 3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역 내 주요 건물은 중축선(中軸線)을 따라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남쪽부터 북쪽으로 대문인 집현문(集賢門), 중문에 해당하는 태학문(太學門), 그리고 유리패방(琉璃牌坊), 벽옹(辟雍), 이륜당(彝倫



〈그림 3〉 베이징 국자감의 벽옹



〈그림 4〉 건륭 황제가 벽옹에서 거인들에게 강학하는 그림

堂), 경일정(敬一亭)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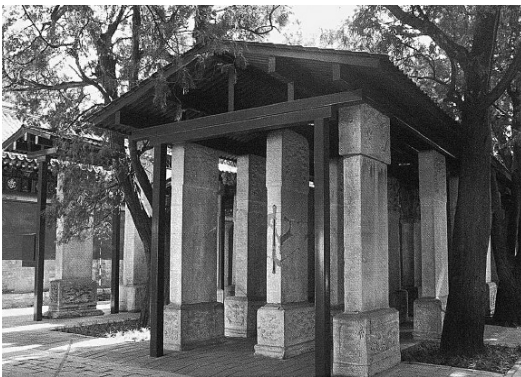
베이징 국자감 내 여러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중심을 이루는 건축물은 벽옹(辟雍)이다. 『예기(禮記)』의 <왕제(王制)>에 “태학은 교외(郊外)에 두는데, 천자의 태학은 벽옹이라 하고, 제후의 태학은 반궁이라 한다(大學在郊, 天子曰辟雍, 諸侯曰泮宮).”라고 한 것처럼 벽옹은 국자감 그 자체로 통할 만큼 국자감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황제국(皇帝國)을 자칭하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 국자감에서 벽옹은 가장 완벽한 건축구조와 화려한 색채를 자랑한다. 현재 남아있는 벽옹은 우리나라 정조 7년에 해당하는 건륭(乾隆) 48년(1783)에 건립된 것으로 황제가 전국(全國)의 거인(舉人)¹²⁾들을 위해 강학(講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황제는 즉위를 하면 반드시 이곳에서 한 번은 강학을 해야 했다. 벽옹은 주대(周代)의 제도에 따라 정남향으로 건립되었고 정방형의 평면에 높이가 38m, 지붕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인 황색으로 된 유리 기와가 덮고 있다. 4면에 각기 문 하나씩을 개설하고 4면은 회랑과 못으로 둘러싸였다. 원형의 못 주위로 한백옥(漢白玉)으로 조각된 난간을 가지고 있다. 못 위에는 돌다리를 가설하고 벽옹의 4개 문으로 향하게 했다.

벽옹 북쪽으로는 이륜당(彝倫堂)이라고 하는 전각을 두었는데, 청(淸)의 건륭제가 벽옹을 건립하기 전에는 황제들이 강학하던 장소였으나, 이후 서책을 보관하는 장소로 변화하였다. 양쪽 행각은 30칸의 규모인데 감생(監生)들이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장소이다. 통칭 ‘육당(六堂)’이라고 한다. 동쪽으로는 솔성당(率性堂), 성심당(誠心堂), 송지당(崇志堂), 서쪽으로는 수도당(修道堂), 정의당(正義堂), 광업당(廣業堂)이 있다. 이들 뒤에 있는 경일정(敬一亭)은 국자감 최고 교관인 제주(祭酒)가 업무를 보던 곳이다.

국자감의 동쪽에 위치하는 공묘 역시 크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축선(中軸線)을 따라 남쪽부터 북쪽으로 선사문(先師門), 대성문(大成門), 대성전(大成殿), 숭성사(崇聖祠)가 자리하고 있다. 공묘에서 가장 핵심적 건축물은 대성전인데 1302년 처음 건립되었다가 전쟁으로 불타 영락(永樂) 9년(1411) 7칸으로 중건되었고 광서(光緒) 32년(1906) 9칸으로 확장되었다. 황제를 상징하는 황



〈그림 5〉 대성전



〈그림 6〉 진사제명비



〈그림 7〉 숭성사

색의 유리기와를 덮은 대성전 내부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인 사성(四聖), 즉 맹자(孟子) · 증자(曾子) · 안자(顏子) · 자사(子思)의 신위 및 주자(朱子) 등 12철(哲)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선현(先賢)과 선유(先儒)들은 양쪽 동서무(東西廡)에 종사(從祀)하였다.

국자감 공묘의 첫 번째 영역 내 동쪽에는 비정(碑亭), 신주(神廚), 성생정(省牲亭), 정정(井亭)이 있고, 서쪽에는 비정(碑亭), 치재소(致齋所), 그리고 국자감으로 통하는 문인 지경문(持敬門)이 있다. 양쪽에는 198개의 원 · 명 · 청 3대의 진사제명비(進士題名碑)가 있는데 여기에는 총 51,624명에 달하는 과거 합격자, 즉 진사(進士)들의 성명과 본적, 과거합격 석차 등이 기록되어 있다. 중간 영역의 주요 건축이 대성전,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그리고 13개의 어비정(御碑亭)이다. 세 번째 영역에는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을 제사하는 공간인 숭성사(崇聖祠)가 있다.

한편 베이징 국자감 안에는 이상의 건축물들과 함께 동 유적의 오랜 역사를 증언해주는 노거수(老巨樹)들도 다수 식재되어 있는데 특히 대성전 앞 계단 향좌측에 있는 수령 700여 년의 ‘촉간백(觸奸柏)’과 국자감 내 박사청 앞에 있는 회화나무인 ‘부소괴(復蘇槐)’가 특히 유명하다. 두 나무 모두 원대(元代) 국자감 제주(祭酒)인 허형(許衡, 1209~1281)이 심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촉간백은 명대(明代) 간신인 엄숭(嚴嵩, 1480~1567)이 가정제(嘉靖帝)를 대신해 공묘에 제를 지내기 위해 이 나무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가 그의 양관(梁冠)을 떨어뜨리자 사람들이 그 촉백이 충신과 간신을 구분할 줄 안다고 하여 “촉간백(觸奸柏)” 또는 “판간백(辨奸柏)”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고, 부소괴는 청대(清代) 건륭제의 모친인 자영태후(慈寧太后)의 회갑 때 고사된 나무에 새싹이 돌아나 그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국자감은 우리나라의 사적(史蹟)에 해당하는 중국의 제1급(第一批) 전국중점문화보호단위(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국자감과 같은 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불가불리의 관계에 있는 공묘는 <징콩미야오(京孔廟)>라는 이름으로 제3급(第三批) 전국중점문화보호단위(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되어 국자감보다는 지정등급이 높지는 않지만 국가적 보호를 받고



〈그림 8〉 국자감가

있다.¹³⁾

국자감의 남쪽에는 과거에는 ‘성현가(成賢街)’, 오늘날은 ‘국자감가(成賢街)’로 불리는 거리가 있는데 현재 베이징 시의 시급문화보호단위(市级文物保护单位)로 지정된 유일한 가로이고, 베이징에 보존되어 내려온 유일한 패루가(牌樓街)이기도 하다. 사합원(四合院)이라고 하는 중국 전통의 가옥 양식을 간직한 건물들이 가로변과 그 내부에 다수 보존되어 있어 국자감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국자감과 공묘는 원래 각기 수도도서관, 수도박물관으로 사용하다가 더 나은 보호와 이용을 위해 베이징 시 정부가 경비를 투입하여 두 기관을 다른 부지에 신축해 2004년 이전함에 따라 2008년 공묘와 국자감 박물관(孔廟和國子監博物館)으로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나라 때 국자감에는 당시 감생(監生)이라 불리던 학생들이 최대 약 1,000명 가까이 있었고, 러시아, 交趾(지금의 버마), 고려(지금의 조선) 등의 유학생도 있었으며, 몽고족, 회족, 장족, 만족 등 소수민족 학생들도 국자감에서 공부를 했다. 때문에 베이징의 국자감은 단순히 건축적으로 700여 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존속하고, 중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온 중국 전근대 시대 최고 학부라는 점 뿐만 아니라 중국과 외국인 상호 문화교류의 중요 무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보존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2) 서울의 성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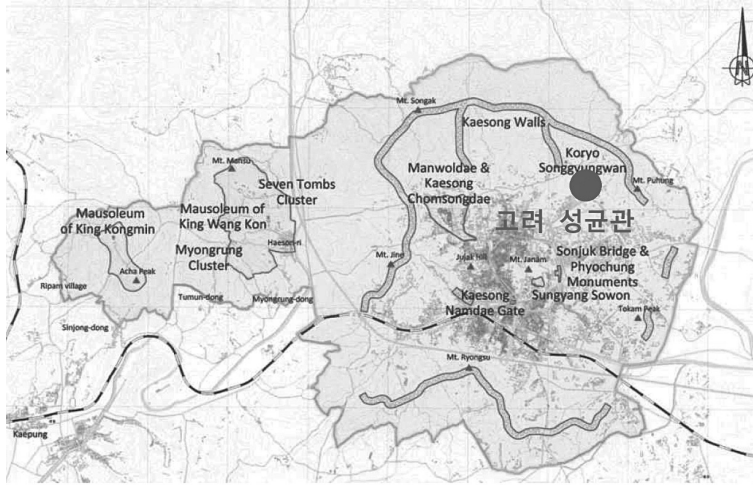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유교가 처음 전래되어 이를 교육하기 위해 고구려에 국학인 태학(太學)

이 처음 건립되었으나 과거제와 학교제가 결합된 형태의 국립 최고학부, 즉 국자감은 고려시대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고려에서는 광종 9년(958) 과거제가 중국의 5대 10국 시대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雙冀)의 건의로 처음 도입되었고, 성종 11년(992)에는 성종의 지시로 국자감이 정식 창건되었다. 충렬왕 1년(1275)에 ‘국학(國學)’으로 개칭되었다가 충렬왕 24년(1298)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면서 ‘성균감(成均監)’으로, 충렬왕 34년(1308) 충선왕이 2차로 즉위하면서 ‘성균관(成均館)’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공민왕 때 다시 ‘국자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1362년에 ‘성균관’이라고 개칭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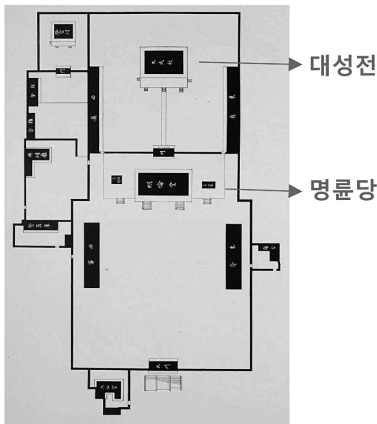
고려의 왕들은 국자감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여 예종 4년(1109)에는 교과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자감 안에 7재(七齋)를 설치하기도 했다. 7재는 주역(周易)을 공부하는 여택재(麗澤齋), 상서(尙書)를 공부하는 대빙재(待聘齋), 모시(毛詩)를 공부하는 경덕재(經德齋), 주례(周禮)를 공부하는 구인재(求仁齋), 대례(戴禮)를 공부하는 복응재(服膺齋), 춘추(春秋)를 공부하는 양정재(養正齋), 그리고 무학(武學)을 공부하는 강예재(講藝齋)로 구성되었다.

과거 고려의 수도인 오늘날 개성(開城)에는 고려시대 국자감의 터를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 그 터 위에 남아있는 유적은 고려시대의 것은 아니고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되자 선조 35년(1602) 서울 성균관을 증건하면서 함께 재건한 조선시대 ‘개성부(開城府)의 향교(鄕校)’이다. 따라서 개성의 성균관은 중국 당(唐)의 수도인 시안의 부학과 문묘를 겸한 사례와 유사하므로 조선시대 성균관의 이해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조선시대에 이름은 여전히 성균관으로 불렸으나 성격은 개성부의 향교였던 오늘날 개성의 성균관은 2013년 <개성의 역사적 기념물과 유적지(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이라는 이름의 연속유산(serial properties) 속에 ‘고려 성균관(Koryo Songgyungwan)’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약 1만㎡의 부지에 18동의 건물이 남북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크게는 명륜당을 중심으로 하는 강학(講學)구역이 앞쪽에 있고, 대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배향(配享) 구역을 뒤쪽에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림 9〉 개성의 역사적 기념물 및 유적지의 세계유산 등재 도면



〈그림 10〉 『朝鮮古蹟圖譜』에 실린 개성 성균관의 건물 배치도

배치는 베이징이나 서울의 국자감과도 다른 형식인데, 고려시대의 국자감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조선시대의 성균관은 고려의 국자감을 계승하여 태조 6년(1397) 조선왕조의 수도인 한양에 건립되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조선왕조의 도성의 내부, 법궁(法宮)인 경복궁과 이궁(離宮)인 창덕궁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 동북쪽에 배치하되 <그림 12>에서도 보이는 것과 같이 중국과는 다르게 산(鷹峰)과 물길(泮水) 등 자연지세를 고려하고,¹⁴⁾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형식을 따라 가장 핵심적인 두 건물인 대성전과 명륜당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건물들은 조성되는 시기에 따라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그림 11〉 한양도성도(1780, 리움미술관) 상의 조선성균관 입지



〈그림 12〉 『태학지(太學誌)』 반궁도 상의 조선성균관 건물 배치양상

같이 두 핵심건물들의 좌우와 후면에 특별한 축선(軸線) 없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명륜당, 대성전,¹⁵⁾ 존경각(尊經閣), 식당(食堂), 정록청(正錄廳) 등 주요 건물 거의 모두가 소실된 후 선조 34년(1601)~선조 39년(1606) 재건되었지만 조선 전기의 입지환경과 배치형식 등은 그대로 답습되었다.

성균관의 전체적 규모는 사적 지정구역을 기준으로 볼 때 40,089㎡인데 이로써 보면 중국의 국자감과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최초 조성 당시에는 조선이 명(明)의 제후국임을 자처하면서, 중국 국자감의 약 절반 정도로 조성하고자 의도하였음이 『태종실록』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드러나고,¹⁶⁾ 이후의 기록들에서도 중국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이 계속 확인된다.

定泮宮外廣丈數。禮曹啓曰，謹按『文獻通考』，璧雍太學外廣二十四丈，應二十四氣。今泮宮外廣十二丈，應十二月，禁人作家爲便。從之。

반궁(泮宮)의 외광(外廣)의 장수(丈數)를 정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살펴보니 ‘벽옹(璧雍)이나 태학(太學)의 외광(外廣)이 24장(丈)이니 24절기(節氣)에 응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반궁(泮宮)의 외광(外廣)이 12장(丈)이니, 12개월에 응한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국자감이 가장 많이 확장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던 정조 때를 기준으로 보면¹⁷⁾ 국자감 내에는 학교 시설로는 강학(講學)공간인 명륜당과 생원·진사들의 기숙사인 동재(東齋)·서재(西齋), 외삼문, 도서관에 해당하는 존경각(尊經閣), 비천당(丕闡堂: 1988년 재건), 비천당 대문(멸실), 일양재(一兩齋: 멸실), 벽입재(闢入齋: 멸실), 정록청(正錄廳), 식당(食堂), 양현고(養賢庫: 멸실), 육일각(六一閣), 어서비각(御書碑閣), 벽송정(碧松亭: 멸실) 등이, 제사시설로는 대성전, 동무(東廡), 서무(西廡), 제기고, 비각, 신문(神門), 동삼문(東三門), 동고(東庫), 동서 협문, 수복청(守僕廳), 감찰제집사방(東·西月廊), 전사청(典祀廳), 향관청(享官廳), 포주(庖廚), 수라간(멸실), 악생청(樂生廳: 멸실), 악기고(樂器庫: 멸실), 차장고(遮帳庫: 멸실) 등이 있었다.

정조 때와 비교할 때 성균관의 주요시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으나, 양현고 등 일부 부속시설 총 9개소는 멸실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베이징의 국자감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국자감 안에도 동 유적의 600여 년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수목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수령 700년 이상¹⁸⁾된 명륜당 앞의 은행나무가 국가 천연기념물 제59호로 지정되어 있고, 수령 450+50년의 대성전 앞 은행나무 두 그루도 서울시 기념물 제37호로



〈그림 13〉 성균관 명륜당



〈그림 14〉 성균관 대성전



〈그림 15〉 천연기념물 제59호

지정되어 있다.

한편, 중국과는 차별적인 우리나라 성균관만의 특징을 형성하는 풍수와 지형을 고려한 배치는 현재 성균관의 주산(主山)인 응봉(鷹峰), 성균관을 감싸안고 흐르던 반수(泮水), 반수 위 4개 다리 등이 일제강점기 하천 복개와 해방 이후 성균관대(유림회관) 건설과 시설 확장 과정에서 훼손되면서 부분적으로 함께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적의 완전성(integrity) 회복을 위해서는 정밀 사료조사와 발굴조사 통해 고증이 가능한 경우 원지형과 옛 물길 등의 회복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성균관의 주변지역에는 조선 초기부터 반촌(泮村)이 형성되었다. 성균관이 ‘반궁(泮宮)’이라 불리다 보니 그 주변의 마을은 ‘반촌(泮村)’ 또는 ‘반동(泮洞)’이라 칭해지고, 주민들은 ‘반민(泮民)’ 혹은 ‘반인(泮人)’이라고 불렸는데 고려시대에 문성공 안유(安裕)가 성균관에 준 노비 100명이 조선시대에 서울에 성균관이 조성되자 함께 내려와 나중에 그 후손



〈그림 16〉 1935년 경의 성균관과 주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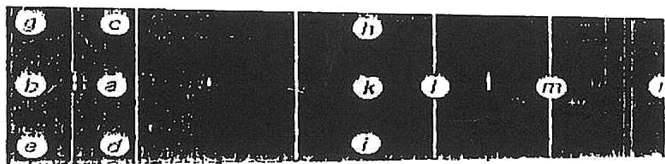
〈그림 17〉 오늘날 성균관과 주변지역

들이 수천 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경지략(漢京識略)』에 따르면 경모궁(景慕宮)의 연지(蓮池)가 반촌의 하한선이 되었는데, 영남 유생들이나 벼슬아치들이 서울에 오면 모두 반촌 민가에 유숙했고, 서울에 사는 유생이라도 과거시험을 볼 때에는 반촌에 머물렀다고 한다. 또한 경성에서 소를 잡아 파는 가게를 속칭 ‘현방(懸房)’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반민들이 그 업을 주도하도록 제도로써 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사사로이 팔지 못하게 하였으며, 성균관의 이에(吏隸)들도 모두 반촌 사람들이 맡게 했다고 한다. 반촌은 장재천(2011)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날의 대학촌이요, 대학가인 셈이다.¹⁹⁾ 그런데 오늘날 성균관 주변에 반촌은 남아있지 않다. 베이징의 국자감이 그 내부는 물론 주변의 국자감가까지 비교적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성균관은 현재 국유(관리청: 문화재청)이며, <서울 문묘와 성균관>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영역이 국가 사적 제143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핵심건축물들은 다시 <서울 문묘와 성균관(대성전·동무·서무·삼문·명륜당)>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보물 제141호로 지정되어 있고,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은행나무 세 그루가 천연기념물 또는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적 지정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상 경관 및 환경 규제 대상이 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3) 베트남 하노이의 국자감

Quoc Vuong(1999)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우 유교는 진(秦)·한(漢) 군(軍)의 침입에 의해 전파되었다고 한다.²⁰⁾ 그래서 베트남도 우리나라와 같이 리(李) 왕조 시대인 1076년 오늘날 하노이에 국자감(Quốc Tu Giám)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유교 교육이 행해졌다. 리 왕조 군주들은 부처를 숭배하는 한편으로 행정기구 구축의 필요에 따라 유교도 발전시켰다. 리 왕조의 타인 통(聖宗, 1054-1072)은 1070년 문묘(Văn Miếu)를 세우고 공자와 주공(周公)의 상(像)을 만들 것을 명했으며²¹⁾ 6년 후에는 국자감을 건립했는데 처음에는 최고 교육기관은 아니었고, 한자를 배우러 간 왕세자 한 명만이 학생이었다고 한다.



- A. 文廟 祭사 구역
- B. 太學區
- C. 進士碑 堦
- D. 德才 聖所
- E. 入道區
- a. 太學舍
- b. 明倫舍와 庫
- c. 講堂, 宋儒殿
- d. 講堂, Tu Lam cuc
- e-g Khu Tem Xa
- h-j 左右第名碑亭
- k. Thien Quang tinh
- l. 太學門
- m. 大中門
- n. 文廟門

〈그림 18〉 리-편 왕조시대의 국자감의 건물 배치도 [Quoc Vuong(1999)에서 재인용]

국자감이 서서히 최고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은 쩌(陳) 왕조 때이다. 이 시기에 국자감은 서서히 최고 교육기관으로 발전했다. 이 시기에 과거제와 학교제가 결합되었고 지방 학교에서 공부한 후 재능이 있는 자들은 수도에서 고등학문을 계속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관료들의 자제에게만 개방되었으나 13세기 몽고 침입 이후로는 재능 있는 평민 자제들에게도 개방되었다.

명 지배기가 끝난 뒤 레(黎) 왕조 기간 동안 레 씨(氏)는 유교를 국가 이데올로기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국자감과 문묘는 현재와 같은 크기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레 타인 퉁(聖宗, 1460~1497) 치세에 발생했다. 이때 이후 지속적으로 보수나 증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후속 왕조들은 국자감-문묘의 구도를 유지했다.

하노이의 국자감-문묘는 베이징의 국자감과 서울 성균관이 궁성 밖 동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궁성인 탕롱(Thàng Long) 성(城)²²⁾ 바로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전체면적이 54,000㎡에 달한다. 총 면적으로만 보면 베이징의 국자감이나 서울의 성균관보다도 더 넓다. 또한 하노이의 국자감은 베이징의 국자감이 좌묘우학(左廟右學)의 배치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를 하여 큰 틀에서는 서울의 국자감과 일견 유사한 배치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의 국자감이나 서울의 성균관과도 모두 다른 것은 주요건물들이 남북축상으로 일렬로 배치되고, 총 5개의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념과 제도는 중국에서 수입했으나 각 국가의 자연환경과 지형에 맞게 배치 및 건축양식 면에서 독자성을 보유한 것임을 하노이 국자감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림 21〉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하노이의 국자감의 건물 배치 양식은 전체적으로 중국과는 다르고 주요건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전묘후학(前廟



〈그림 19〉 하노이 국자감의 위치



〈그림 20〉 하노이 국자감의 주요건물 배치양상

後學)의 배치형식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남향은 아니나 남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축상으로 정문인 문묘문(Van Mieu Mon)과 중문(中門)에 해당하는 대중문(大中門: Dai Trung Mon) 사이 구역이 1권역이고, 2권역은 대중문에서 1805년 건립되고 오늘날 하노이의 상징인 규문각(珪文閣: Khue Ban Cac) 사이 구역이다. 3권역은 방지

(方池)인 천광정(天光井: Thien Quang Thinh) 구역인데, 이 연못 좌우로 두 개의 회랑이 건립되어 있고, 여기에 중국과 유사하게 총 82개에 달하는 진사제명비²³⁾가 세워져 있다.



〈그림 21〉 규문각

4권역은 대성문(大成門: Dai Thanh Mon)-대성전(大成殿: Dien Thanh Bai Duong) 구간이다. 중국의 건축양식을 일부 수용하여 건립된 대성전은 두 개의 건물이 이어져 있는데 앞의 건물에는 공자의 상(像)과 72명의 그의 수제자들의 위패가, 뒤의 건물에는 Trần 왕조 때의 존경받는 유학자이자 고위관료였던 朱文安(Chu Văn An, 1292~1370)의 상(像)이 모셔져 있다. 베이징과 서울의 대성전에는 같은 공자를 모시



〈그림 24〉 하노이 국자감의 대성전



〈그림 22〉 규문각과 천광정



〈그림 25〉 대성전 내부 공자 상



〈그림 23〉 진사제명비



〈그림 26〉 대성전 내부 주문안의 상



〈그림 27〉 재건된 계성전

더라도 상(像) 형식이 아닌 위패(位牌) 형식으로 모시고 있는데 하노이의 경우 원대(元代)의 예를 따라 조상(彫像)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국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5권역은 원 국자감 권역인데, 1802년 응우웬(阮, Nguyen) 왕조의 Gia Long 황제가 수도를 하노이에서 후에(Hue)로 옮겨 그곳에 국자감을 새롭게 건립하게 되자 하노이의 국자감은 공자의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계성전(啓聖殿: Thai Hoc Duong)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1946년 프랑스군의 폭격을 받아 파괴되었다가 2000년 원위치에 원형대로 재건되었다.

하노이의 국자감 내 건물들의 이름은 중국 베이징 및 우리나라 서울의 그것들과 유사하나 건축양식은 15~19세기 베트남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과거제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진사제명비들이 잘 보존되고 있는데, 이들 석비들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도 등재되었다.

이와 같은 하노이의 국자감과 문묘는 베트남이 프랑스 보호국이 된 후 1906년 역사적 기념물(Monument historique)로 지정되었고 현재도 베트남의 국가 역사문화유적(Historical-Cultural Sites)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유산법(2001)의 보호를 받고 있다.

3.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및 추진 방안 검토

1) 국자감·성균관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등재 가능성 검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 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3국은 중국의 공자(孔子)가 체계화 한 유

교(儒敎)를 국가 통치원리와 이념으로 수용하고, 이 유교를 충분히 학습하고 고도로 체화한 인재가 과거제를 통해 관료가 되어 국가를 운영해 가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었다. 중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유교와 각종 제도들을 최초로 고안하고 발전시켰으며,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과 느슨한 조공 관계를 맺고 정치·외교적으로 연결되는 동시에, 중국에서 운용되던 선진적 제도와 문화를 수입하여 자신들의 정치,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켜나갔다. 이러한 체제는 산업혁명으로 부를 축적한 서양 열강이 19세기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눈을 돌려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진출하기까지 약 1,000년 이상 동아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지속되었고, 그러한 체제의 작동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이 바로 국자감 또는 성균관인 것이다. 세 나라의 국자감 모두 40,000~55,000m² 정도의 크지 않은 규모를 가진 유산들이지만 이 시기 동아시아 세계를 이끈 대부분의 저명한 학자 겸 관료들이 이러한 건축 공간들에서 수학하며 양성²⁴⁾되었고, 또 중국의 국자감을 중심축으로 하여 삼국이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자각 하에 사신 왕래라는 수단을 통하여 유교 이론과 국자감의 건축 제도, 과거제 운영방식을 상호 교류하였기 때문에 이들 공간은 형식적으로 각국의 최고의 국립대학교라는 의미를 벗어나 당시 동아시아 세계 전체의 정치,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근거지역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 유산들에서 양성된 학자 겸 관료들은 오늘날 아시아 사회를 정체적이고 퇴행적인 사회로 만든 주요인이 아니라 동시대 서양사회보다 계층적 유동성이 훨씬 풍부한 개방된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새롭게 평가²⁵⁾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유산들은 각국의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이 당시의 최고 건축기술을 적용하여 건립²⁶⁾하였는 바 당대의 건축양식과 기술, 재료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이들 유산들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유교적 제의의 일종인 석전대제(釋奠大祭)²⁷⁾나 제공악무(祭孔樂舞)²⁸⁾ 등 무형유산들이 식민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보존, 실행되어 왔거나 정치·사회적 체제 변화에 따른 오랜 단절에도 불구하고 기록화된 자료들에 기초하여 진정성 있게 복원되어 음악을 통한

백성 교화를 위주로 하는 유학의 통치정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동아시아 삼국의 국가감 또는 성균관은 각 국가 차원의 유산의 범주를 벗어나 세계사적 의의가 좀 더 강하게 부여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될 수 있을까? 만약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등재 가능한가?



〈그림 28〉 베이징 국가감에서의 제공약무



〈그림 29〉 서울 성균관에서의 석전대제



〈그림 30〉 하노이 국가감 계성전 공연

이들 유산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이하 OGs로 약칭함)>에 따르면,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유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탁월한 세계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OUV로 약칭함, 즉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를 포함한 전 인류에 있어 공통적으로 문화 및 자연적인 중요성을 가질 것, 그리고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 국가의 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 OUV를 가늠하는 OGs 상의 등재기준 중 최소한 아래의 세 가지 기준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ii)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서의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 유교적 제의와 강학을 목적으로 하는 10c~20세기초 동아시아 세계의 최고 국립대학 건축물들로서 중국에서 시작되고 확립된 학교 및 제의 건축을 당시 동아시아 세계의 중추를 형성하던 한국과 베트남이 수용하여 각국의 풍토에 맞게 적응, 발전시킨 건축군으로서 약 1000년 동안 지속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이다.

(iii)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 중국은 원대에서 청대, 한국은 조선 왕조, 베트남은 리 왕조에서 응 우옌 왕조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동 유산을 매개로 이루어진 과거제도와 학교제도의 결합적 운용을 통해 당시 동아시아 세계의 민주적, 개방적 발전을 이끈 저명한 학자 겸 관료들을 이들 국가감 또는 성균관에서 다수 배출하였는 바 동 유산들은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세계 전체의 정치,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근거지 역할을 20세기 초까지 약 1000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vi)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 음악을 통한 백성 교화를 위주로 하는 유학의 통치

정신이 독특한 건축물들의 배치와 동 유산을 무대로 지속적으로 행해져 온 제례 및 동 제례를 위한 음악 속에서 오늘날까지 살아있다.

이상과 같이 정의된 OUV는 남아있는 유산 자체만이 아니라 삼국에 유존하고 있는 각종의 사료상의 기록들과 연대별 지도, 그리고 사진 등을 통해 진정성 있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베이징의 국가감을 제외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 식민화와 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적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들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으나 OUV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으므로 진정성과 완전성 역시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2) 등재 추진 전략과 추진방안

그렇다면 3개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이들 유산들이 효과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먼저 이들 유산들은 각자 단독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서울의 성균관과 문묘를 들어 보자면 서울의 성균관과 문묘는 조성시기가 중국·베트남의 그것보다 떨어지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으며, <중묘>와 달리 창조적 걸작이라고 평가될만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유적 자체와 주변부가 훼손되어 있어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단독으로는 충족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더군다나 동아시아 문화권 문묘제도의 원류이고, 최고(最古)·최대 규모 유적이며, 완전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중국 산둥성 곡부의 <공묘(孔廟)>가 1994년 <곡부의 공묘(孔廟)와 공자의 묘(墓), 그리고 공씨 일가 저택(Temple and Cemetery of Confucius and the Kong Family Mansion in Qufu)>²⁹⁾에 포함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기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연구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성균관과 문묘는 중국 산둥성 곡부의 공묘나 중국 베이징의 국가감의 아류(亞流)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중국의 국가감이나 베트남의 국가감도 세계유산 단독 등재 가능성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의 성균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과 방법을 채택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위에서 간단히 논한 OUV 기준은 사

실 세 유산을 하나의 통합된 유산으로 이해했을 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 유산들을 월경 또는 초국가적 연속 유산(transboundary or transnational serial properties)³⁰⁾으로 등재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등재 추진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15년 OGs를 보면 한 국가는 1년에 2개의 유산을 등재 지명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개는 자연유산 또는 문화경관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문화유산은 결국 1국이 1개의 유산만 등재 지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유산위원회는 전세계적으로 1년에 45개의 유산만을 등재 심사하게 되는데, 45개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면 OGs 6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심사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3국의 국가감 또는 성균관은 다른 우선권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월경 또는 초국가적 유산(transboundary/transnational properties)³¹⁾으로 접근할 때만 심사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 i) 세계유산을 가지지 않은 당사국의 유산 지명
- ii) 세계유산을 3개까지 보유한 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유산 지명
- iii) 1년 심사대상을 45개로 제한함에 따라 과거에 심사가 배제된 유산 지명
- iv) 자연유산 지명
- v) 복합유산 지명
- vi) 월경 또는 초국가적 유산 지명
- vii) 아프리카, 태평양, 카리브해 연안 국가의 지명

그런데 월경 또는 초국가적 연속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속유산을 구성하는 요소가 왜 이들 3개 국가의 국가감 또는 성균관에 한정되는가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향후 비교연구를 통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나, 일본의 국학이 왜 삼국의 국가감 또는 성균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를 설명하는 본고 서론에서의 주장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

월경 또는 초국가적 연속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하는 또 다른 요건은 OGs 114조와 OGs 135조에서 드러나는데, 관련 당사국들이 전체로서의 월경유산의 관리를 감독할 공동 관리위원회 또는 그와 유사한 기구를 수립하거나 관리 공조를 담보하는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고 등재 지명에서 문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월경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 총 18개의 관리 시스템을 조사해 보면 특히 유럽에 분포하는 유산들을 중심으로 공동의 위원회 또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관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공동의 사업을 구상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월경유산인 <무스카우어 공원(MuskauerPark)>은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지 계획과 관리에 관한 협력 협약을 두 당사국이 체결하고 그에 근거하여 폴란드-독일 실무 그룹을 형성, 공동사업을 구상, 추진하는 형태로 관리 공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세계유산에 새롭게 등재된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 작품들(Works of Le Corbusier, an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Modern Movement)>의 경우도 총 3개 대륙, 7개 국가에 남은 17개 유산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어 당사국들이 등재 추진과정에서부터 상설회의(Standing Conference)를 구성하여 등재 구성 요소들을 선별하는 작업에서부터 공조된 관리계획 수립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를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중국과 한국, 베트남 3국의 국가감 또는 성균관이 연속유산으로 등재 추진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국가간 관리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도 OGS 39조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유산이 지속가능하게 보존, 관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등재 지명, 관리, 모니터링에 있어서 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이해를 갖는 개인과 이해 관련자들, 특히 지역공동체, 원주민, 정부간-비정부간-개인 단체, 소유자들간 파트너십이 특히 필요한 바, 국가감 또는 성균관의 경우도 이러한 파트너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들을 등재 지명과정에서부터 관리와 모니터링에 주도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공조된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월경/초국가적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경우 국가 간 이해관계, 등재 준비상황의 차이(유적 및 주변지역 정비, 학술조사 등), 당사국 간 경제력 차이와 예산 부족, 당사국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등에 따라서는 등재 추진 합의 도출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는 신뢰성 있는 협의 채널 구축에 노력을 더 경주할 필요가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당사국들간 등재 준비

진행상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검토와 실행이 요구될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19세기 이전 동아시아 세계를 형성하고 있던 핵심국가들인 중국과 한국, 베트남 3국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 국립 교육기관인 국가감 또는 성균관의 역사를 유교의 전래 과정 속에서 살펴보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들의 배치양상과 건축적 특징을 삼국에 공통된 요소와 어느 한 국가 유산만이 가지는 독창적 요소를 대조하는 형식으로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해 이들 유산이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각 국가를 움직인 대표적 학자 겸 관료들을 배양하던 주요 공간이자 10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세계 전체의 정치,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근거지 역할을 하였음을 논하였다.

이어 이와 같이 중요성을 갖는 유산들이 현재 각 국가의 국가 유산으로 보존, 관리되고는 있으나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세계사적 의의가 좀 더 강하게 부여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등재 추진을 위한 효과적 전략 또는 방안으로 국가간 공동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월경/초국가적 연속유산으로의 등재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 연속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해당 유산들이 위치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등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국경을 넘어선 국가간 연속유산 등재 추진에는 더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 강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생각건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자체가 어느 한 국가의 유산 보존 및 관리의 목표일 수는 없다. 오히려 등재 추진을 어느 한 유산이 가지는 가치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하고, 그러한 가치의 진정성 있는 보존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때 1972년 세계유산협약 체결의 목표가 달성된다 하겠다.

19세기 서구 열강의 아시아 진출 및 침략이 본격화 되기 이전인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의 핵심을 구성하던 중국과 한국, 베트남 3국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 국립 교육기의 월경 또는 초국가적 연속유산 등재 추진도 단순히 세계유산 등재진수를 증가시키고 관광객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유산 자체의 국내적 의미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의미까지를 비교 연구를 통해 더 발굴하고, 그러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는 유산의 보다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세부방안을 지역공동체와 함께 머리 맞대고 검토하여 이를 실행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주

- 1) 김한규, 1999, “7~8세기 동아시아 세계질서의 구조적 특성과 그 운영체제의 기능”, 진단학보, 제88호, p.401.
- 2) 이상욱(2010)은 동아시아의 다른 제국들과 비교해 일본의 유교 또는 유학사상은 불교나 신도(神道) 또는 고쿠가쿠(國學) 등과 병렬적으로 ‘경쟁하는’ 정도의 위상이었으며, 사회 체제를 구성하는 정도의 압도적인 권위(orthodoxy)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 박종배(2014)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한국·베트남과 유사한 학교제가 있었으나 그 성격과 발전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인강성당(忍岡聖堂)의 사영(私營) 문묘에서 시작하여 탕도성당(湯島聖堂)의 관사공영(官私共營) 문묘로 변화하였다가 다시 학문소(學問所) 대성전의 관영(官營) 문묘 형태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과 한국이 당초부터 묘학(廟學)의 형태를 띤 관학(官學)의 한 축으로 출발해 근세 시기까지 그 성격이 변화가 없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 이 학교가 중국, 한국, 베트남과 달리 과거제와 결합하여 운영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는 제외하기로 한다.
- 3) 국자감이라는 용어는 『주례(周禮)』 <춘관종백(春官宗伯)>의 대사악(大司樂) 부분의 ‘음악과 덕으로써 국자(國子)를 가르친다’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
- 4)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최초 건립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국자감(國子監)’이라고 불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 초~중기에는 ‘국자감’, 고려 후기~조선시대까지는 ‘성균관(成均館)’으로 불리고 있다. ‘성균’이라는 말은 『주례(周禮)』의 <춘관종백(春官宗伯)>의 대사악(大司樂) 부분에 처음 나오는데 동중서(董仲舒, B.C. 179~B.C. 104)는 성균을 “오제의 학(五帝之學)”이라고 했고, 황이주(黃以周, 1828~1899)는 성균관을 주대(周代)의 대학(大學)을 통칭하던 명칭이라고 했다.
- 5) Quoc Vuong(1999)이나 何懷宏(1999)의 경우가 그 대표적 입장이다.
- 6) Alexander Woodside(2006)의 경우가 그러한 연구를 대표한다.
- 7) 중국 내 공묘의 통계자료는 中国孔子基金会·中国孔庙保护协会가 주관하고 中国孔庙信息化平台工作委員会가 구축한 홈페이지 <中國孔廟(http://www.chinakongmiao.cn)>에서 인용하였다.
- 8) 우리나라 문묘 통계자료는 진잠향교의 홈페이지(http://www.hyanggyo.co.kr)의 전국 향교 목록에 서울의 문묘를 더한 것이다.
- 9) 베트남의 문묘 숫자는 Quoc Vuong(1999)의 논문에서 추정한 것이다.
- 10)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있어서 유교 교육과 관료 후보군 양성 기능을 수행한 사립학교인 서원(書院)의 경우 문묘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과 대비해서 볼 필요가 있다.
- 11) 따라서 이하에서 국자감 또는 성균관이라고 할 때는 굳이 국자감과 문묘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 공묘 또는 문묘가 포함된 단일공간을 지칭한다.
- 12) 중국에서는 향시(鄉試)·회시(會試)·전시(殿試) 등 3단계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거인(舉人)은 향시(鄉試)에 합격한 자들을 지칭한다.
- 13) 중국의 공묘 중 국내적으로 가장 보호 강도가 강한 유적은 산둥성 곡부에 있는 <曲阜孔廟及孔府>이다. 이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중국 제1급(第一批) 전국중점문화보호단위(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되어 있다.
- 14) 국자감의 입지환경과 관련하여 태종실록 20권 1410년(태종 10) 9월 29일조 기사에 실린 신숙주의 문묘비 찬문에서는 “갑술년에 태조께서 이미 도읍을 세우고 종사(宗社)·조시(朝市)·성곽·궁실의 제도가 모두 적당하게 되니 곧 묘학(廟學)을 영건하기를 도모하여 도성 동북 모퉁이에 땅을 정하였는데, 산이 그치고 땅이 넓고 물이 둘러 흘러, 그 위치가 남쪽을 향하였다.(歲甲戌, 太祖既建都, 其宗社、朝市、城郭、宮室之制, 咸底厥宜, 卽謀營廟學, 度地於都之東北隅, 山止土衍, 水環以流, 厥位面陽)”라고 하고 있고, 변계량(卞季良)은 「문묘비문(文廟碑文)」에서 ‘산이 그치고 땅이 넓으며 물이 둘러흐르는 남향 자리인 도성 동북쪽에 터를 정하고…….’라고 하였으며, 이정구(李廷龜) 또한 「문묘비음기(文廟碑陰記)」에서 ‘태조께서 처음 도읍을 정할 당시 먼저 문묘와 태학을 세워 터를 한성의 동북쪽 숭교의 골짜기인 산이 둘러싸이듯 껴안고 땅이 넓은 곳에 정하니, 두 물이 두루 흘러 스스로 반벽(泮壁)을 이루는 형국이 참으로 하늘이 지은 영경(靈境)이다.’라고 기술함으로써 국자감을 조성할 터를 정함에 있어 산세와 지형, 터의 규모, 그리고 좌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 15) 오늘날 대성전에는 과거에 대성전, 동무, 서무에 분산되어 있던 5성(聖), 공문(孔門) 10철(哲), 송조(宋朝) 6현(賢), 우리나라의 18현(賢) 등 총 39위의 위패가 한데 모셔져 있다.
- 16) 태종실록 11권 1406년(태종 6) 3월 14일.
- 17) 1785년(정조 9)에 발간된 『태학지(太學誌)』를 기준으로

- 한다.
- 18) 2010년 6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측정한 바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제59호 <서울 문묘 은행나무>는 흉고(胸高)가 215cm에 달하고 수령도 700년(오차범위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크기와 수령을 서울시에 소재하는 다른 노거수(老巨樹)들과 비교하면 문묘의 은행나무가 크기도 가장 크고, 연대도 가장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19) 장재천, 2012, “조선 후기 성균관의 반촌과 반촌인”, 향토서울, 77호, p.84.
 - 20) Quoc Vuong, T. 1999, Some Features of Confucian Traditions in Vietnam: Temple of Literature and Quoc Tu Giam, 大東文化研究, 第34輯, p.146.
 - 21) 《대월사기전서(大越史記全書)》에는 “庚戌神武二年秋八月修文廟, 塑孔子, 周公及四配像, 畫七十二賢像, 四時享祀, 皇太子至此學習.”라고 하여 1070년 문묘가 처음 건립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2) 2010년 <Central Sector of the Imperial Citadel of Thang Long - Hanoi>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 23) 원래는 과거에 합격한 진사 총 2,312명의 이름이 새겨진 116개의 비석이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82개만 현존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연대가 오랜 것은 1442년 건립된 것이고, 가장 나중에 제작된 것은 1779년 제작된 것이다.
 - 24) 우리나라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이도 성균관에서 수학하였으며, 중국 원대(元代)의 저명한 학자이자 교육자, 명신(名臣)인 허형(許衡), 명나라의 저명한 서화가인 동기창(董其昌), 사교전서의 총 편찬관 기운(紀昀) 등도 국가감에서 수학하였다. 베트남의 가장 위대한 유학자로 추앙받는 주문안(朱文安)도 국가감 출신이다.
 - 25) Woodside(2006)가 사용한 ‘잃어버린 근대성(Lost Modernities)’이라는 개념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26) 『동문선(東文選)』 제82권에 실린 성간(成侃, 1427~1456)의 「성균관기(成均館記)」에는 “우리 태조께서 즉위하신 아무 해에 국학(國學)을 동북쪽 모퉁이에 설립하였는데, 그 경영·실제와 규모·제도가 모두 적의하게 되어 하나도 완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我太祖即位之某年, 設國學於東北隅, 凡經營, 指計, 規模, 制度, 咸底厥宜).”라고 하여 서울의 성균관이 당시 최고의 건축기술을 동원하여 조성된 사실이 서술되어 있다.
 - 27) 우리나라에서는 성균관을 무대로 <석전대제>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 있고 매년 2월과 8월 정해 놓은 날에 공자를 비롯한 옛 성인들의 학덕을 추모하며 지낸다. 국권을 상실한 일제 강점기에도 매해 빠짐없이 제례가 행해져 왔다. 절차는 영신례, 전폐례, 초헌례, 공악,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철번두, 송신례, 망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연주 음악은 문묘제례악이라 하는데, 기악과 성악, 춤을 총칭하는 대성아악으로, 여덟 개의 아악기만 사용하고, 등가와 현가 두 개의 악단이 절차에 따라 번갈아 연주한다.
 - 28) 제공(祭孔)은 중국 국가감에서 매년 중춘(仲春) 상순(上旬) 정일(丁日)과 중추(仲秋) 상순(上旬) 정일(丁日) 등 두 차례에 걸쳐 행해지는 제례이다. 1989년 가(歌), 무(舞), 악(樂) 삼위일체의 고대 제공악무가 복원되어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공연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제례가 아직 완전하게 복원된 것은 아니나, 계절전 안에서 전통복식을 한 사람들의 전통음악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 29) 고대~청대에 이르는 건물 총 104동이 유존하는 공묘와 공자와 총 100,000여명에 달하는 그 후손들의 분묘, 총 152개동이 유존하는 공자 후손들의 저택이 세계유산 등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 30) 연속유산은 한 국가 영토 안에 구성요소가 되는 유산들이 분산 분포하는 경우와 두 개 이상의 국가 영토에 구성요소가 되는 유산들이 분산 분포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serial national property’라고 하고, 후자는 ‘serial transnational property’라고 한다.
 - 31) 월경유산은 유산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복수의 국가 영토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알프스 지역 선사주거유적> 등 총 34건(문화유산 18건, 자연유산 14건, 복합유산 2건)의 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초국가적 유산은 유산이 국경을 접하지 않은 2개 이상의 국가 영토에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중국, 한국, 베트남의 국가감 또는 성균관은 중국을 사이에 두고 세 국가의 국경이 이어져 있는 경우이므로 월경유산 또는 초국가적 연속유산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기태, 1981, “성균관 존경각 연구”, 규장각, 제4집, 71-91.
- 김동인, 1988, “청대 국가감의 교육적·사회적 기능”, 교육사학연구, 1, 41-73.
- 김수정, 1995, “청말 신사충 분화에 관한 일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한규, 1999, “7~8세기 동아시아 세계질서의 구조적 특성과 그 운영체제의 기능”, 진단학보, 제 88호, 399-431.
- 문화재청, 2006, 서울문묘 실측조사보고서.
- 박종배, 2014, “일본 근세 문묘의 설립과 변천에 관한 일고찰”, 교육사학연구 제24집, 제1호, 31-53.
- 박종배, 2015, “근세 일본 문묘 향사 위치의 특징 분석”, 교육사학연구, 25(2), 125-155.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9, 서울건축사, 서울특별시.
- 송정남, 2005, “왕조시대의 베트남 교육기관: 국가감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제15권 1호, 25-46
- 오금성, 2010, “중국의 과거제”, 한국사 시민강좌 제 46집, 244-262.
- 이상욱, 2010, “베트남과 한국의 전근대 과거제 비교 연구”, 연민학지, 제14집, 105-130.
- 이상해, 2014, “한국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2014년 서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81-192.
- 이하나, 2015, “한국 문묘제례의 특수성과 수용의 의미”, 어문논집, 제61집, 311-347.
- 장재천, 2010, “조선시대 성균관의 반촌과 주변 환경 연구”, 인문사회논총, 제17호, 105-118.
- 장재천, 2011, “조선 후기 성균관의 반촌(泮村)과 반촌인(泮村人)”, 향토서울, 제77호, 83-116.
- 조남욱, 2008, “조선조 유교국가의 형성 기반”, 유교 사상문화연구, 34, 2008, 177-200.
- 조흥국, 2012,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 소나무, 서울.
- 『東國輿地備攷』
- 『東文選』
- 『承政院日記』
- 『燃藜室記述』
- 『日省錄』
- 『朝鮮王朝實錄』
- 『太學誌』卷一
- 『漢京識略』
- 朝鮮總督府, 1931, 朝鮮古蹟圖譜 11, 大塚巧藝社, 東京.
- 郭氏娥, 2012, 越南 國子監 進士石碑 漫談, 漢字研究, 第6輯, 247-254.
- 孔廟和國子監博物館 編, 2012, 孔廟和國子監博物館要覽, 北京燕山出版社, 北京.
- 何怀宏, 1999, 中國的儒學傳統與太學(國子監), 大東文化研究, 第34輯, 61-104.
- 『禮記』
- 『周禮』
- Quoc Vuong, T. 1999, Some Features of Confucian Traditions in Vietnam: Temple of Literature and Quoc Tu Giam, 大東文化研究, 第34輯, 145-189.
- Woodside, A. 2006, Lost Modernities, Harvard University Press, Boston.
- 진잠향교, <http://www.hyanggyo.co.kr>
- 北京市文物局, <http://www.bjww.gov.cn>
- 孔廟和國子監博物館, <http://www.kmgzj.com>
- 中國孔廟, <http://www.chinakongmiao.cn>
- World Heritage Center, <http://whc.unesco.org>
- 교신: 김수정,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이메일: libwatch6990@gmail.com)
- Correspondence: Soo-Jeong Kim, 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05029
(e-mail: libwatch6990@gmail.com)
- 투 고 일: 2016년 7월 18일
심사완료일: 2016년 7월 26일
투고확정일: 2016년 7월 29일

세계유산 화성의 보존관리에 있어 기록자료 활용 방안

오 선 화*

The Utilization Plan of the Historical Document in the Conservation Management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Hwaseong Fortress

Seon-Hwa Oh*

초록: 세계유산 화성은 창건 당시의 축성기록이 존재하는 유일한 성곽유산이다. 베니스헌장을 비롯한 국제보존원칙에서 복원은 신뢰할 수 있는 문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화성은 1997년 세계유산 등재당시 축성기록을 준수하여 복원이 이루어졌음이 높게 평가되었다. 2016년 6월 화성 축성 당시의 기록으로 추측되는 또 다른 자료 『정리의궤』가 발견되었다. 새로이 발견된 『정리의궤』를 바탕으로 다시 원형 복원하자는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본 연구는 세계유산 화성관련 기록자료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교차 검증함으로써 기록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향후 보존관리 측면에서 기록자료의 활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어: 세계유산 화성, 기록자료, 보존관리, 정리의궤, 진정성

Abstract: The UNESCO World Heritage Hwaseong Fortress is a unique military fortress heritage, which has construction records of its founding. All international conservation principles including the Venice Charter shows that cultural properties should be reconstructed with the help of preliminary researches which rest on authentic and credible documentations. With regard to this matter, Hwaseong fortress was highly estimated due to the existence of the records on the obvious construction works when it wa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in 1997. June 2016, another royal protocol, the “Jeongri Uigwe” was found, and it might be highly evaluated as a historical record on the initial construction works. Thus, many opinions are suggesting the restoration of the Hwaseong Fortress according to the “Jeongri Uigwe.”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credibility of the historical text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different documentations as to World Heritage Hwaseong fortress. Moreover, it intends to find out the efficient utilization plan of the document in terms of the conservation management of Hwaseong fortress.

Key Words: World Heritage Hwaseong Fortress, Historical Documents, Conservation Management, Jeongri Uigwe, Authenticity

1. 서론

세계유산 화성은 『화성성역의궤』라는 명확한 축성기록이 존재하는 유산이다. 신뢰할 수 있는 문서에 의해 수리, 복원, 재건의 진정성이 논의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성곽유산인 것이다. 2016년 6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한글 필사본 『정리의궤』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성역도(城役圖)라는 부제가 붙은 권39에 채색도설 43장이 실려 있다.¹⁾ 이 채색도는 1801년에 간

행된 『화성성역의궤』 도설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화성행궁 <장락당도>를 비롯하여 처음 공개되는 그림 10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된 수원 화성, 화성행궁이 원형과 차이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잇따라 보도되었고, 원형복원에 관한 논의 역시 다시 부각되었다.²⁾

이에 본 연구는 『정리의궤』를 비롯하여 세계유산 화성의 복원 및 보존관리에 활용되는 여타의 기록자료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교차 검증함으로써 기록자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박사과정/수원시 화성사업소 학예사(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Curator, Suwon City Hwaseong Fortress Management Office, folkpia2@korea.kr)

료의 신뢰성을 사례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베니스헌장(1964) 및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1994), 세계유산협약 이행지침(2013)에 의거하여 진정성의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무분별한 원형복원의 노력에 앞서 보존관리 측면에서 기록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화성에 국한하였다. 화성 내에 위치한 사적 478호 화성행궁, 사적 115호 화령전 역시 화성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상대적으로 기록자료가 소략하고, 화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연계하여 진정성을 분석하기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기록자료’라는 용어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지침(2013) 제84항 진정성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여 ‘문화재의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 과학적 맥락과 가치를 검토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정보로서 물리적 증거물, 구술자료, 각종문서, 도면자료 등³⁾’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수원 화성과 관련된 조선시대 문헌자료뿐 아니라 그림, 사진, 도면, 구술자료까지 기록자료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보존관리’란 용어는 건축물의 보전, 복원, 재건, 개선, 대체 및 보충, 보수 및 보강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세계유산 화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여타의 활동을 통틀어 지칭하였다.

2. 세계유산 화성 관련 기록자료

창건당시의 축성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는 세계유산 화성의 대표적인 기록자료다. 이와 더불어 조선시대 문헌자료와 그림, 2016년 6월 프랑스에서 발견된 『정리의궤』 채색도 역시 축성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창건이후 변화된 화성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사진 및 수리기록, 1970년대 이루어진 수원성복원정화사업 전의 사진, 실측도면과 복원도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실측, 수리보수에 관련된 보고서 역시 기록자료로 볼 수 있다. 즉, 창건당시의 기록뿐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화성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모든 자료가 미래 후손들에게 유산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자료인 것이다.

1)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1801년)

의궤는 왕실 및 국가 의례 등의 행사를 기록한 보고서로 2007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조선왕조 의궤 약 3,430책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화성성역의궤』는 1794년 1월부터 1796년 9월까지 이루어진 화성 축조에 관한 기록으로, 1801년에 간행되었다. 총 9책의 『화성성역의궤』는 화성의 각 시설과 성역에 사용된 도구의 도설, 화성성곽 건설에 대한 내용, 화성행궁 건설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1997년 세계유산 등재시 축성기록인 『화성성역의궤』가 현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원 및 재건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2) 한글 필사본 『정리의궤(整理儀軌)』(1797년 9월 ~1800년 5월 이전)

한글 필사본 『정리의궤』는 ‘현릉원 원행’과 ‘화성성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8책이다. 그중 프랑스 동양어학원(BULAC)에 12책,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에 1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1887년 한국에 부임한 프랑스 외교관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 1853~1922)의 소장본이 차후 기증된 것이다. 한글 필사본 『정리의궤』는 결본이 많지만 낱자순으로 기록되어 있어 1책부터 38책까지가 현릉원 행행과 혜경궁 탄신경하에 관한 내용이고, 39책부터 48책까지가 화성성역에 관한 내용으로 추측된다. 정조는 1789년 10월 현릉원 천봉이후 1800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13차례 현릉원에 행차하였는데 『정리의궤』에는 1797년 8월 제10차에 해당하는 원행 내용까지 수록되어 있다. 옥영정(2008)은 1797년 9월 이후부터 활자본 『화성성역의궤』 간인 작업이 시작된 1800년 5월 이전시기에 한글 필사본 『정리의궤』가 편찬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한문본 『화성성역의궤』와 한글본 『정리의궤』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만 딱딱한 내용은 생략하고 주석을 통해 전문용어를 부연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을 보아 이 책이 혜경궁을 비롯해 왕실여성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석하였다(옥영정, 2009).

『정리의궤』 권39는 『화성성역의궤』 권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채색본 도설 43장과 각항일시 12장이

수록되어 있다. 각항일시에는 화성 축성의 처음 시작인 1793년 12월 11일부터 1797년 1월 29일 서장대 연거(演炬) 내용까지 주요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정리의궤』마지막에 해당하는 권48 역시 1797년 1월 29일 서장대 연거에 관한 내용으로 맺고 있다. 반면 『화성성역의궤』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1793년 12월 6일부터 1800년 윤4월 17일 성역의궤 인쇄문제를 논의한 내용까지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정리의궤』가 『화성성역의궤』보다 앞선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리의궤』에는 『화성성역의궤』에 실리지 않은 화성행궁 장락당도를 비롯하여 10개의 그림이 더 수록되어 있는 반면, 세부 부재 및 도구에 해당하는 124개 그림은 누락되어 있다. 왕실여성을 위해 화성의 모습을 쉽고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세부 도설은 생략하고 채색도로 간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자료에 수록된 그림을 건축물별로 각각 비교해 보면 『화성성역의궤』의 도설이 상세하고 정확하다.

3)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1796년)

1795년 윤2월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홍씨와 함께 수원을 행차하고 현릉원을 참배한 전 과정을 정리하여 1796년 총8책으로 간행되었다. 1795년은 혜경궁홍씨의 회갑년이자 즉위한지 20년이 되는 해였기에, 정조는 특별히 수원에서 혜경궁홍씨의 회갑연을 개최하고 신도시 수원의 백성을 위로하는 다양한 행사를 베풀었다. 활자로 인쇄된 최초의 책으로 한층 정비된 의궤 체계를 보여준다.

4) 화성행행도(華城幸行圖) 및 <서성우렵(西城羽獵)>, <한정품국(閑亭品菊)>⁴⁾

화성행행도는 1795년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에 걸친 정조의 수원행차 장면을 8폭에 나눠 그린 그림이다. 규장각 자비대령화원(差備待令畵圓)이었던 이인문(1745~1821), 김득신(1754~1822) 등의 작품이다. 수원 화성을 비롯한 화성행궁 건축물이 잘 묘사되어 있다. 단원 김홍도(1745~?)는 정조대 대표적인 화가로 성역이 완료된 후 화성의 아름다운 모습 16경을 그렸다. 그 중 가을 모습에 해당하는 <서성우렵>과 <한정품국>이 현존하고 있다.

5) <화성도(華城圖)>(19세기)⁵⁾

12폭 화폭에 부감법으로 화성 전체를 조망하는 구도로 그려진 <화성도>는 팔달산을 중심으로 총 둘레 4,600보의 성곽, 성문, 암문, 수문 등 화성 곳곳의 시설물이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건물 명칭이 한자로 병기되어 있다. 장안문을 들어선 왕의 행차와 동장대 활쏘기 모습도 묘사되어 있는데 정조 사후 이루어진 순조의 행차로 추측된다. 『화성성역의궤』<화성전도>와 함께 세계유산 화성의 모습을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보여준다.

6) 『수원부계록(水原府啓錄)』(19세기 후반)

『수원부계록』은 수원유수영에서 비변사에 올린 각종 보고 문서를 편집한 책으로, 1845년부터 1877년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1846년 홍수로 인한 건축물 보수에 대하여 개건(改建), 중수(重修), 개축(改築), 수보(修補)로 구분하고 있어 수리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7) 일제강점기 사진자료 및 수리기록⁶⁾

일본인 건축사학자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867~1935)는 1902년부터 1934년까지 조선을 여행하고 답사한 결과물을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15권으로 펴냈다. 조사당시 촬영한 100여장의 화성의 유리건판과 일제강점기 이루어진 공사의 수리기록, 신문기사, 사진엽서 등은 조선시대 문헌기록과 현존하는 건축물 사이의 간극을 채워주는 중요한 자료다.

8) 1970년대 복원이전 사진자료 및 실측도면⁷⁾

수원 화성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수원성복원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수리보수 및 재건되었다. 당시 설계를 담당한 삼아성건축사무소는 1970년대 사진자료와 도면 4000여 점을 보관하고 있다. 공사보고서는 1980년 경기도에서 『수원성복원정화지』로 간행되었다. 이외에도 1950년대 수원과 오산비행장에서 근무한 미군들의 사진을 통해 복원이전의 화성모습을 살필 수 있다.

9) 수원성복원정화사업 회고록⁸⁾

수원성복원정화사업 40주년을 맞아, 2013년 8월

8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당시 공사에 참여하였던 실무자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 등으로부터 복원사업의 배경과 과정, 한계 등을 청취한 자료는 1970년대 복원 및 재건사업을 검증하는 기록이다.

10) 수리보고서

세계유산 화성 관련한 수리보수 공사보고서 역시 중요한 기록자료다. 수원시는 사업별 공사보고서 외에 10년 주기로 수리백서를 편찬하고 있다. 현재 1989년부터 1999년까지의 자료가 묶인 『세계유산 화성 수리백서』와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원화성 수리백서』가 간행되었다.

3. 화성의 재건 및 보존관리 현황

화성 축성공사는 1794년 1월 7일 시작하여 1796년 9월 10일 완공되었다. 축성이후 크게 세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수리보수 사업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1848년으로, 1846년 수원천이 범람할 정도의 비로 화홍문·남수문·매향교가 무너지고 방화수류정·팔달문 등이 피해를 입자 수리공사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로, 장안문을 비롯하여 서복공심돈·화서문·방화수류정 등 화성의 주요 건축물 수리가 진행되었다. 세 번째는 1970년대 이루어진 수원성복원정화사업이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대대적인 복원·재건 공사가 진행되어 한국전쟁이후 파괴된 수원 화성이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수원성복원정화사업은 『화성성역의궤』가 번역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당시 설계자는 번역과 발굴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설계안을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회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은 가장 진정성 있는 복원사업으로 손꼽힌다. 축성기록인 『화성성역의궤』를 토대로 일제강점기 간행된 『조선고적도보』, 일제강점기 수리도면, 유구와 잔존 시설물 등을 참조하여 복원 및 재건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오선화, 2013). 수원성복원정화사업 완료 후 수원시는 화성사업소를 신설하여 화성내의 시설물관리와 주변 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사업은 1999년부

터 2015년까지 140여건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기록자료를 바탕으로 창건이후 화성의 수리보수, 재건 등에 관련한 사업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문화재 보수 계획 수립시 일차적으로 관련 기록자료를 통해 수리이력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당 문화재의 변화과정을 이해해야만 현재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으며, 예상가능한 취약범위를 보완하여 보수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화재를 해체한 이후에야 과거의 보수범위를 확인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방향이 수정되기도 한다. 또한 기록자료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난관에 봉착하기도 한다. 과거 유산의 기록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 현재 유산의 보존관리 기록을 면밀히 작성하는 것 모두 세계유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4. 기록자료와 세계유산 화성의 비교분석

베니스헌장 9조에 의하면, ‘복원은 원래의 재료와 출처가 분명한 문서에 바탕을 뒀야 하고, 추측이 시작되는 순간 중지’되어야 한다.⁹⁾ 『화성성역의궤』는 축성당시의 모습을 기록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화성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기준 및 근거를 제시하는 문서이다. 이와 함께 원형의 모습으로 추측되는 일제강점기 사진자료 및 실측도면, 발굴유구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아쉽게도 이 모든 기록자료가 전해주는 유산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 『화성성역의궤』상에서도 도설과 채용편의 기록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기록자료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추측에 의한 복원사업이 시작된다. 현재 복원 재검토가 논의되는 건축물 역시 불분명한 기록을 해석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 최근 『정리의궤』 채색도 발견을 계기로 화성의 원형을 재복원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원형복원 노력에 앞서 기록자료들간의 교차검증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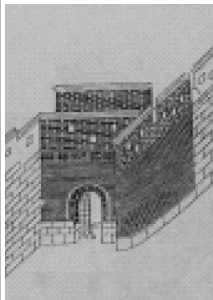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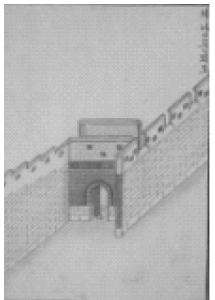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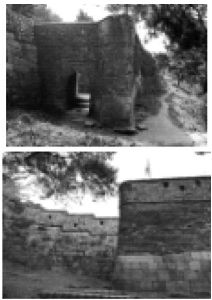
기록자료와 현존하는 화성 건축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특히 원형의

〈표 1〉 화성 수리보수 연혁

연번	날짜	사업내용	관련 기록자료
1	1794.1.7	화성 축조 위해 석재 뜨는 공사 착수	화성성역의궤
2	1794.1.15	새로 쌓는 성을 '화성'이라 명명	화성성역의궤
3	1794.9.29	서장대 완공	화성성역의궤
4	1795.윤2.13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거행	원행을묘정리의궤
5	1796.9.10	화성성역 완공	화성성역의궤
6	1796.10.16	화성성역 완공기념 낙성연 거행	화성성역의궤
7	1824	장안문과 팔달문 옹성 홍예문 위에 문루 건립	화성지
8	1848	화홍문 · 남수문 개건, 팔달문 등 중수, 장안문 개축	수원부계록
9	1875	장안문 옹성, 창룡문 옹성, 화양루 수리	수원부계록
10	1886	화홍문 기둥이 무너져 중수	수원군읍지
11	1913	팔달문 옹성 홍예와 여장 철거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유리건판 사진
12	1925	홍수로 무너진 화홍문 석축 중수	1925.3.9. 동아일보/1923년 제작 화홍문 수리도면/ 유리건판 사진
13	1927	팔달문~남수문, 남지에 이르는 성곽 철거	1927.7.20. 조선일보
14	1930	남수문, 남공심돈, 남암문 일대 철거	1930.7.12. 조선일보
15	1932	방화수류정 중수	1934.12.14. 동아일보/ 유리건판 사진
16	1933	화홍문 중수	1933.5.25. 동아일보/유리건판 사진
17	1932~1933	화서문 지붕공사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수리도면
18	1934~1935	장안문 지붕 등 보수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수리도면
19	1950	팔달문 지붕보수	1950.4.8. 동아일보
20	1956	성곽 여장 보수	1956.5.23. 경향신문
21	1960	장안문 성벽 보수	국가기록원 문화재보수정비실적
22	1963	팔달문 옹성 보수공사	1963.3.25. 경향신문
23	1965	장안문 복원	국가기록원 문화재보수정비실적
24	1967	북서적대~북동치 성벽 보수공사	국가기록원 문화재보수정비실적
25	1969	팔달문 지붕공사, 목공사, 단청, 미장공사	국가기록원 문화재보수정비실적
26	1970	장안문 기단과 석축보수	국가기록원 문화재보수정비실적
27	1971	서장대, 서노대 복원/ 화서문, 서북공심돈 보수	국가기록원 문화재보수정비실적
28	1972	동장대, 북암문 보수	국가기록원 문화재보수정비실적
29	1973	방화수류정 단청 보수	국가기록원 문화재보수정비실적
30	1975	장안문~팔달문 구간 복원 및 재건	수원성복원정화지
31	1976	화홍문~창룡문 구간 복원 및 재건	수원성복원정화지
32	1977	장안문~화홍문 구간 복원 및 재건	수원성복원정화지
33	1978	창룡문~동남각루 구간 복원 및 재건	수원성복원정화지
34	1987	팔달문 옹성 폭우로 훼손	세계유산 화성 수리백서
35	1988	동북공심돈 보수, 화홍문~북포루 여장 옥개전 보수	세계유산 화성 수리백서
36	1990	서포루~팔달문 여장 옥개전 보수	세계유산 화성 수리백서
37	1991	화홍문~동남각루 여장 옥개전 보수	세계유산 화성 수리백서
38	1993	팔달문 옹성 보수/화서문 기와고르기/ 화재로 서장대 복원/ 동장대 지붕보수/ 북포루 해체보수/ 서북공심돈 지붕보수 등	세계유산 화성 수리백서
39	1994	서남암문 포사,서포루, 화양루, 남포루 지붕보수	세계유산 화성 수리백서
40	1995	화홍문~장안문 여장 옥개전 보수/ 동포루, 동일포루, 동이포루, 동남각루 기와고르기	세계유산 화성 수리백서
41	1996	화서문~서포루 여장 옥개전 보수/ 장안문 옹성 보수/ 장안문 성곽잇기 공사(보도육교 설치)	세계유산 화성 수리백서

〈표 1〉 계속

42	1997	팔달문 옹성보수/ 화서문 성곽잇기 공사(보도육교 설치)	세계유산 화성 수리백서
43	1997	서포루,서북각루 보수공사/ 동남각루~봉돈 여장 옥개전 보수	세계유산 화성 수리백서
44	1998	동북공심돈, 동북포루, 방화수류정, 북서포루, 봉돈 보수/ 창룡문 성곽잇기 공사(보도육교 설치)	세계유산 화성 수리백서
45	1999	북암문, 북서적대, 동암문, 북암문, 북포루, 장안문옹성, 서포루, 남포루 보수 / 화홍문 성곽잇기 공사(보도육교 설치)	세계유산 화성 수리백서
46	2000	남포루 옆 성곽잇기공사/팔달문 기와보수	수원화성 수리백서
47	2001	장안문 지붕보수, 기와고르기	수원화성 수리백서
48	2002	화성행궁 1차 중건(482칸)	수원화성 수리백서
49	2005	장안문 여장잇기	수원화성 수리백서
50	2006	서장대 복원공사	수원화성 수리백서
51	2007	화홍문, 창룡문, 동북공심돈, 동안문, 방화수류정 보수	수원화성 수리백서
52	2008	화양루, 동일포루, 동이포루, 동북각루, 서북각루 보수 / 성신사 복원	수원화성 수리백서
53	2009	화서문, 동남각루, 화홍문 보수	수원화성 수리백서
54	2010~2012	남수문 복원	수원화성 수리백서
55	2010~2013	팔달문 해체보수	수원화성 수리백서
56	2011	동포루, 동북노대, 동암문 전돌 보수공사	수원화성 수리백서
57	2014	동남각루~창룡문 여장 보수/동북공심돈 보수	공사보고서
58	2015	동남각루 해체보수/ 화홍문 창호복원/ 동북공심돈 보수	공사보고서

구분	화성성역의궤	정리의궤	일제강점기 사진	현황
서암문			없음	

출처: 서암문 현황(2013년 7월 서헌강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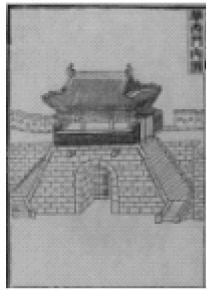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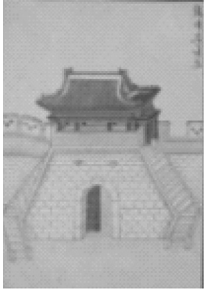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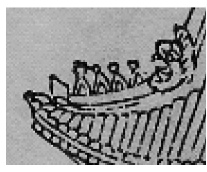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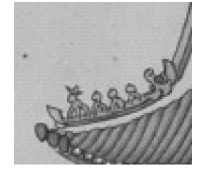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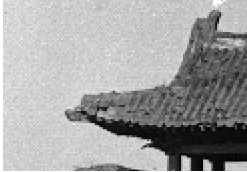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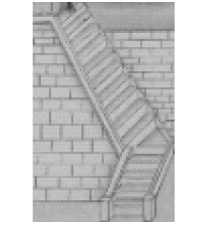

〈그림 1〉 서암문

건축물이 현존하는 경우,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 기록과 실물의 비교를 통해 기록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창건이후 수리기록 등의 기록자료를 바탕으로 유산의 최초 모습과 그 이후 변화된 흔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현재 유산의 가치를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원형 건축물이 현존하는 사례

1970년대 복원사업의 결과를 정리한 『수원성북

원정화지』에 의하면 서암문은 원형이 잘 남아 있어 1975년 수리시 줄눈과 옥개전 보수 정도만 이루어졌다.¹⁰⁾ 이 내용을 근거로 하면 현 모습과 『화성성역의궤』의 도설이 일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화성성역의궤』, 『정리의궤』 속의 서암문은 역시 현황과 다른 모습이다. 『정리의궤』에서는 서암문 외벽이 석재로 표현된 반면 『화성성역의궤』에서는 전돌로 표현되어 있다. 현 모습은 『화성성역의궤』 그림과 더 유사하다. 그러나 의궤 속 서암문의 석축은 1단이고 현황은 4단으로 쌓여 있다.

구분	화성성역의궤	정리의궤	일제강점기 사진	현황
화서문				
				
				
			없음	

출처: 일제강점기 사진(1920년대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화서문 현황(2013년 7월 서헌강 촬영)

〈그림 2〉 화서문

서암문이 『화성성역의궤』 도설과 상이하게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수리기록 또는 사진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의 모습이 원형의 모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화성성역의궤』 권5 실입(實入)조의 내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입조에 의하면 서암문에는 “대무사석 8덩이(선단을 만듦), 중무사석 12덩이, 소무사석 27덩이 등이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¹⁾ 무사석(武砂石)이란 노출되는 면을 네모반듯하게 다듬은 돌로 석축을 쌓을 때 쓰인다. 대무사석 8덩이는 선단(扇單) 즉 홍예석 하부를 받치는 석재로 쓰였고, 중무사

석과 소무사석이 서암문 외측의 석축으로 사용되었다. 서암문과 마찬가지로 원형이 남아 있는 북암문은 그림과 실제 모두 석축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무사석 8덩이(선단을 만듦), 소무사석 20덩이’¹²⁾로 기록되어 있어 서암문이 북암문에 비해 많은 석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입조에 기록된 석재의 수량을 통해 창건당시부터 서암문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암문은 현존하는 건축물과 기록자료를 비교함으로써 『화성성역의궤』 및 『정리의궤』 그림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다. 『화성성역의궤』 및 『정리의궤』의 그림은 정

밀실측 통해 작성된 도면이 아니라 그림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림을 곧 계획도면 또는 준공도면으로 상치할 것이 아니라 실입조의 내역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화서문은 원형의 건축물이 현존하며 보물 403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 2>의 『화성성역의궤』 도설과 『정리의궤』 채색도는 세부표현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치한다. 축성이 완료된 후 한말까지 화서문 수리에 관련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1932년부터 1933년까지 화서문 수리공사 기록이 존재하는데 주로 지붕부에 한해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¹³⁾ 수리전후 사진을 비교해보면 기와고르기와 양성바름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용두가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화성성역의궤』 권5 실입조에 의하면 화서문은 창룡문과 같은 형태로 ‘취두(鷲頭) 2개, 용두(龍頭) 4개, 잡상(雜像) 20개’가 설치되었다.¹⁴⁾ 그러나 1932년 수리당시 이미 용두와 잡상은 사라진 상태였다. 일제강점기 현황복원의 수준에서 수리공사가 진행되어 의궤와 달리 ‘취두 2개, 용두 8개, 잡상 0개’로 설치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화서문과 같은 형태라고 기록된 창룡문은 한국전쟁이후 문루가 소실되어 1976년 재건되었는데, 화서문을 모본으로 재건공사가 이루어져 역시 ‘취두 2개, 용두 8개, 잡상 0개’가 설치되었다.

『화성성역의궤』 및 『정리의궤』 상의 그림에서 화서문 좌우측의 계단은 화성 여타의 성문과 다르게 ㄱ자 형태로 꺾여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 화서문 좌우측의 계단은 서로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좌측은 계단참을 두고 ㄱ자로 꺾이는 구성이라면, 우측은 U자형으로 꺾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수원성복원정화지』에 의하면 1975년 당시에도 우측 계단은 U자형으로 꺾인 모습으로 의궤와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¹⁵⁾ 창건이후 수리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림과 건축물이 본래부터 상이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원형의 건축물이 현존하는 화서문 역시 『화성성역의궤』 및 『정리의궤』의 그림과 일치하지 않으며 창건 이후 수리력을 살펴보아야 현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의궤에 화서문의 계단을 특별히 설계한 연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1970년대 복원당시에도 의궤의 그림과 다르게 존재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의궤의 그림과 현 모습을 비교하여 복원하는 행위는 근거가 미약

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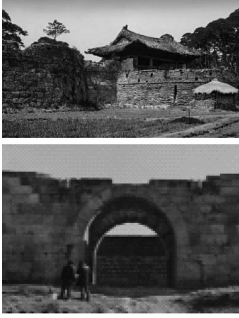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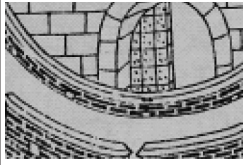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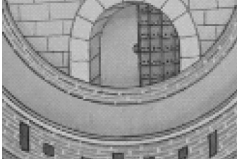


그러나 잡상복원 문제는 다르다. 잡상이란 추녀마루에 설치한 여러 동물상을 일컫는데 살림집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주로 궁궐건축에 쓰인다. 건물규모에 따라 3개, 5개, 7개 등 홀수로 설치되어 건축물의 위계를 상징한다. 당초 화성의 사대문 추녀마루에는 잡상이 각 5개씩 설치되어 있었다. 한양도성에 버금하도록 성곽을 쌓고 이상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던 정조의 의도가 건축물의 위상으로서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화서문과 창룡문의 경우 잡상복원을 통하여 세계유산 화성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렇듯 창건당시의 모습으로 재복원하는 문제는 유산의 가치와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수리기록이 현존하는 사례

창룡문은 한국전쟁 이후 문루가 유실되어 『화성성역의궤』와 화서문을 참고하여 1978년 재건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에 창룡문 부재 탁본과 평면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에 실측조사가 이루어진 듯하나 수리공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수원성복원정화지』는 1978년 당시 모습을 소략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중 옹성에 관하여 ‘잘 보존되고 있다.’고만 기록되어 있어 옹성의 수리범위를 짐작하기 어렵다.¹⁶⁾

『화성성역의궤』 권수 동옹성 부분의 자료에 의하면 ‘내측에 벽돌로 된 누조 4개를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⁷⁾ 이 부분을 확인해보면,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화성성역의궤』 창룡문 외도 도설에는 4개의 누조가 표현되어 있는 반면 『정리의궤』에는 누락되어 있어 『화성성역의궤』가 더욱 정확한 도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촬영된 사진을 보면 동옹성의 누조는 옹성 내측이 아닌 외측에 설치되어 있다. 현황도 동일하다.

동옹성의 구조와 동일하다고 기록된 화서문은 『화성성역의궤』 그림처럼 옹성 내측에 4개의 누조가 설치되어 있다. 창룡문과 화서문이 동일한 구조와 형태로 건축된 것을 감안하면, 화서문 옹성은 원형이 유지된 반면 창룡문 옹성은 변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수원부계록』에 의하면 1874년 홍수로 인해 1875년 창룡문 옹성의 일부를 수리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그 무렵 변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¹⁸⁾

구분	화성성역의궤	정리의궤	사진자료	현황
창룡문				
				

출처: 사진자료(1920년대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75년 촬영, 삼아성건축사사무소 소장/ 1920년대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창룡문 현황(2013년 7월 서현강 촬영)

〈그림 3〉 창룡문

『화성성역의궤』에 의하면 창룡문과 화서문 웅성의 내측은 석재로 쌓은 반면 외측은 전돌로 축조되어 있다.¹⁹⁾ 웅성상부의 통로바닥이 내측으로 약간 기울어져 빗물이 자연스럽게 석재 쪽으로 배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화서문 웅성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내측에 설치된 누조를 통해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창룡문 웅성은 외측에 누조가 설치되어 있고, 웅성의 통로바닥 역시 외측으로 기울어져 있어 빗물이 전돌에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줄눈 또는 전돌에 지속적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웅성파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창룡문 웅성의 경우, 창건당시 빗물이 석재부분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 1875년 수리보수로 인하여 웅성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성성역의궤』를 참고하여 원형복원이 필요한 사례이다.

화홍문은 물길 위에 지어진 수문으로 수리보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설물이다. 창건 당시의 모습은 『화성성역의궤』 및 『정리의궤』에 수록된 화홍문 내외도와 유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1907년 독일인 헤르만산더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하부 수문형태가 의궤와 차이가 있다. 『수원부계록』에 의하면 1846년 6월 9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수원천이 범람하였고 화

홍문 수문과 문루가 모두 무너졌다. 1848년 복구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복수문을 비롯해 남수문, 매향교, 남창교는 개건(改建)하였으며, 팔달문, 각건대, 방화수류정, 남암문, 동남각루, 남포루, 화양루, 서장대, 서포루는 중수(重修)하였고 장안문은 개축(改築)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건물이 수보(修補)되었다.²⁰⁾ 김왕직(2015)은 화홍문이 완전히 파괴되어 새로 지었는데 중수가 아닌 개건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옛 방식 그대로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즉, 1848년 개건공사에서 『화성성역의궤』와 다른 수문의 형태가 축조된 것이다. 창호와 판문은 1848년 개건 당시 또는 그 이후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홍문은 1922년 7월 홍수로 또다시 큰 피해를 입었다. ‘홍수로 기둥이 물러나고 홍예석이 유실’ 될 정도의 손상이 있었으며 연이은 폭우로 석문 전부가 파괴되었다.²¹⁾ 조선총독부는 하류로 떠내려간 석재와 목재 등이 하천의 흐름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재를 취합하였고 1925년 석축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누각은 예산상의 이유로 1932년에 중건되었다. 화홍문 복구공사를 위하여 1923년에 그린 설계도면을 보면 1848년 개건된 수문형태로 설계안이 만들어졌으며 창호와 판문은 복원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²²⁾

구 분	화성성역의궤	정리의궤	사진자료	현황(2016년)
화홍문				
			 	
				
				

출처: 사진자료(1920년대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07년 헤르만산더 촬영,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920년대 촬영,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1975년 촬영, 삼아성건축사사무소 소장/ 1907년 헤르만산더 촬영,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화홍문 현황(2016.6 필자 촬영).

〈그림 4〉 화홍문(복수문)

1977년 화홍문 문루 북쪽에 가퇴를 설치하기 위해 해체보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가퇴 양쪽의 여장부 수리가 이루어졌는데, 김왕직(2015)은 이 공사로 인해 여장하부 포루부분이 원형을 잃었다고 보았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의궤 도설에는 누각 아래의 포루가 누각 밖 좌우로까지 연장되어 있는 반면 현재는 포루가 단절되어 있으며 상부가 좁고 경사

지게 마감되어 있다. 누각 하부의 전돌 문양은 이미 1907년 촬영된 헤르만산더 사진과 『화성성역의궤』의 문양이 다른 것으로 보아 1848년 개건시 변이된 것으로 보인다.

화홍문 누각 하부의 전돌 문양이 창건 당시 방화수류정의 십자문양과 동일하였음이 주목된다. 『화성성역의궤』 권4 공장(工匠)조를 보면 장용영에 속한 미

장이 권옥(權玉)이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을 담당했다.²³⁾ 권옥은 1795년 공로를 인정받아 미장이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의 상을 받았다. 권옥의 예술성이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2015년 화홍문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화성성역의궤』 도설 및 재용, 실입조에 근거하여 성내의측의 창호와 판문을 복원한 것이다. 창건이후 지속적인 중수, 개건, 수리보수가 이루어진 화홍문은 『화성성역의궤』 및 『정리의궤』 그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화홍문의 수문 하부는 1848년 양식을 따르고 있고, 누각은 창건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창건 당시는 1고주5량가 구조였던 화홍문 누각이 현재는 2평주5량가 구조로 바뀌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창건 당시의 모습과도 차이가 있다. 『화성성역의궤』 및 『정리의궤』의 그림과 건축물 현황을 단순 비교하여 원형복원을 논하기 어려우며, 복원에 앞서 기록 자료를 통해 수리이력의 검토가 선행해야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수문으로서 화홍문의 기능은 유지되었지만, 형태상의 몇 가지 변이는 복원될 필요성이 있다. <그림 4>에서 제시한 화홍문 포루는 1977년 수리 보수되었는데 포루가 단절되어 있고 상부가 좁고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어 군사들이 화홍문과 포루 여장부를 오가며 공격 방어할 수 있었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2015년 화홍문 외측의 판문이 복원되어 여장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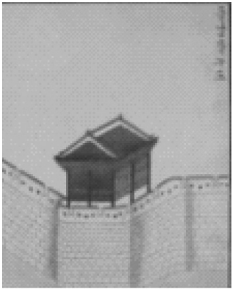



연속성은 확보되었으나 여전히 판문과 연결되는 화홍문 포루가 단절되어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 의궤의 모습대로 원형 복원함으로써 화홍문의 군사방어적 기능을 강조할 수 있다.

화홍문 누각의 전돌 문양역시 복원될 필요가 있다. 누각의 전돌 문양은 개보수시마다 조금씩 변화하였다. 그러나 당초 모습은 방화수류정과 같은 십자문양이었음이 『화성성역의궤』 및 『정리의궤』 그림에 나타나 있다. 화성축성 당시 미장이 가운데 최고상을 받았던 권옥이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을 담당한 점을 보았을 때, 전돌 문양을 교체함으로써 화홍문에 부여될 진정성의 가치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

3) 『화성성역의궤』 기록으로 재건된 사례

『화성성역의궤』 기록에 의하면 동남각루는 1796년 7월 25일 완공되었으며, 규모와 형태는 서북각루와 같다. 그러나 원형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사진자료가 단 한 장도 남아 있지 않다. 서북각루는 석축이 잔존하고 있어서 1975년 그 위치에 재건되었고, 동남각루지에는 성벽을 허물고 민가가 들어서 있어서 1978년 발굴조사를 통해 위치 추정 후 누각을 재건하였다.

2014년 동남각루의 주초석이 침하되고 기둥이 기울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전면 해체보수가 결정되었다. 당초에는 현황 복원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화

구분	화성성역의궤	정리의궤	1978~2013년	현황(2016년)
동남각루			 	 

출처 : 사진자료(2013년 7월 서현강 촬영), 동남각루 현황(2016년 7월 필자 촬영)

<그림 5> 동남각루

성성역의궤』 기록과 상이한 부분을 해체의 기회를 이용하여 원형복원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역시 『화성성역의궤』다. 동남각루 및 서북각루 도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남각루는 구천(龜川)의 위 일자문성(一字文星)의 머리에 있다. 성이 산세 때문에 이곳에 이르러 가파르게 똑 끊어졌으며 누는 성 위로 솟 나와서 멀리 평야를 바라보고 있다. 그 규모 또한 5량(五樑) 4간으로 높이와 너비가 모두 서북각루와 같다. 다만 4간에 모두 판자를 깔고 동쪽 처마 아래에 층계를 설치하였다. 서남 한 간은 청판(廳板) 아래에 역시 온돌을 설치하였다.²⁴⁾

서북각루는 화서문의 남쪽 146 보쯤 되는 거리의 산 위 휘어 굽은 곳에 있다. 5량 4간으로 동서가 18척, 남북 22척, 동북 3간은 모두 판자를 깔고, 사면을 평간으로 둘렀다. 위에는 판문을 설치하였고 외면에는 모두 짐승의 얼굴을 그리고 전안을 뚫어 놓았다. 내면에는 태극을 그리고, 그 서남 한 간은 비워서 층계를 설치하여 북쪽으로 누상에 이어지게 하였다. 동남 1 간은 청판(廳板) 아래를 벽돌로 담을 둘러치고, 온돌을 설치하여 수직하는 군사가 있게 하였다. 평지에서 누의 바닥까지 5척 7촌, 누의 높이 7척 5촌이고, 단청은 3토를 사용하였으며, 들보 위는 회를 발랐다.²⁵⁾

위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화성성역의궤』의 도설 내용은 매우 소략하다. 이 자료만으로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를 추정하기란 쉽지 않다. 『화성성역의궤』 채용, 실입조의 분석을 통해 건물의 형태 및 재료의 종류, 수량 등이 고증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실입조에 기록된 ‘장연 38개(중서까래목), 단연 26개(중서까래목 13개)’라는 자료를 통해 건물형태를 우진각 지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팔작지붕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다.²⁶⁾ 서북각루는 팔작지붕으로 재건되어 있고, 동남각루는 우진각 지붕으로 재건되어 있는 현황 역시 『화성성역의궤』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2015년 동남각루 복원 공사시 지붕의 방향과 형태, 1층 방의 위치, 계단 위치, 판문의 형태, 단청 등 많은 부분이 재검토되었으나 의궤의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화성성역의궤』에 의거하여 원형 추정이 확실한 전면부의 형태, 계단위치, 판문에 한하여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부분은 1978년 재건 양식을 준수하여 복원되었다.

동남각루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뢰할 수 있는 문서가 소략한 경우 추측에 의하여 복원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 경우 무엇보다 『화성성역의궤』 도설과 채용, 시설물간의 비교검토를 통해 의궤에 대한 면밀하고 정직한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보존관리 측면에서 기록자료 활용방안

1) 기록자료를 활용한 유산의 진정성 찾기

2016년 6월 발견된 『정리의궤』는 화성의 창건 당시 모습을 채색그림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이른바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의궤』에 근거하여 원형 복원하는 것이 화성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진정성이란 곧 원형을 가리키며, 이는 형태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과연 『정리의궤』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가에 대한 문제는 교차검증을 통해 검토해야 함을 앞서 밝혔고, 그 다음으로 진정성에 대한 개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진정성의 개념은 베니스헌장(1964년)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 이 헌장의 서문은 ‘진정성을 온전하게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유산의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정신적 요소까지 보존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헌장 제11조를 보면 기념물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모든 시대의 요소와 이로 인해 축적된 역사적 흔적을 존중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²⁷⁾ 양식적 통일을 염두에 둔 원형 개념에서 탈피하여, 유산의 역사적 흔적을 모두 진정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이수정, 2012).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수리 시행서, 2009년에 제정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재건 및 관리에 관한 원칙’을 살펴보면 ‘원형유지’라는 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세부원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내 문화재보호법이 원형유지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국제보존원칙에는 ‘유산이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기체적 속성을 지닌다.’는 함의가 내포되어 있어, 해당 문화재의 최초 모습뿐 아니라 변화된 흔적까지도 진정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세계유산협약 이행 지침 제80항에 의하면 유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만한지에 따라서 결정된다.²⁶⁾ 현재 남아 있는 유산의 최초의 모습과 그 이후 변화된 흔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곧 진정성을 규명하는 과정으로서, 유산의 진정성이란 원형복원이 아니라 기록자료를 통해 확보된다. ‘원형 복원’이라는 허울아래 현재까지의 모든 흔적을 없애고 특정 시점으로 되돌리는 행위는 곧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새로이 발견된 『정리의궤』를 바탕으로 선부른 원형복원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유산의 진정성을 찾는 방법론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기록자료를 활용한 보존관리 방향 수립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해야 한다. 진정성이란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한 정보 출처에 유산의 가치가 근거해야 함을 의미하고, 완전성이란 문화유산과 그 속성이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전체적인 특징을 유지함을 의미한다(최재현·김숙진, 2015).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등재당시 그대로 유지하여 후손에 물려주는 것이다.

화성은 그 이전 시대에 조성된 성곽과 구별되는 양식을 갖추었다. 기존 성곽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방어시설을 도입하고, 우리의 지형에 맞게 설치하였다. 화성축조에 사용된 새로운 장비와 재료의 발달은 동서양 과학기술의 교류를 보여준다. 또한 화성은 군사, 행정, 상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도시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18세기 조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시 이상과 같은 특징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었다.²⁹⁾ 조유진(2013)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전승하는 방향으로 보존관리 및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계유산 화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성곽의 어떤 요소에 이와 같은 특징이 깊이 새겨져 있는지를 찾아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찰력은 유산의 보존 및 복원계획을 수립

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베니스헌장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시대의 요소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제거할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나 드러날 부분이 역사적, 고고학적, 미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졌을 경우 최초의 상태를 드러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의궤』의 그림처럼 유산의 형태를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록자료의 검토를 통해 화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때, 『화성성역의궤』 및 『정리의궤』에 의거하여 최초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 앞서 사례로 제시한 화서문의 잡상, 창룡문 웅성의 누조, 화홍문의 포루, 누각의 십자 전돌 문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복원계획 수립은 철저하게 기록자료에 근거하여 진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세계유산 화성은 창건 당시의 축성기록이 존재하는 유일한 성곽유산이다. 베니스헌장을 비롯한 국제보존원칙은 신뢰할 수 있는 문서를 바탕으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화성은 세계유산 등재시 『화성성역의궤』를 바탕으로 복원이 이루어졌음이 높게 평가되었다. 2016년 6월 또 다른 축성기록으로 평가되는 『정리의궤』가 발견되었다. 이후 그림과 다른 부분을 원형복원하자는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기록자료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교차 검증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향후 보존관리 측면에서 기록자료의 활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화성관련 기록자료는 창건당시의 기록인 『화성성역의궤』, 『정리의궤』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문헌자료와 그림, 일제강점기 사진 및 도면, 1970년대 수리복원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가 존재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화성의 진정성을 규명하는 근거자료로서 활용된다. 그러나 기록자료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형의 건축물이 현존하는 경우, 조선시대 수리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화성성역의궤』를 바탕으로 재건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구분하여 기록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선행한 후 국제보존원칙에 의거하여 보존 및 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내 문화재보호법이 원형보존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제보존원칙은 문화유산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지녔음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모든 변화과정을 유산의 진정성 범위로 인정하며 선부른 복원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원형복원 사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제거할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나 드러날 부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세계유산 화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요소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문서『화성성역의궤』에 의거하여 창건당시의 모습으로 복원이 가능한 것이다. 기록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해당 유산의 가치와 진정성을 명확히 인지한 뒤 보존관리 계획이 수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다.

주

- 1) 프랑스 국립도서관 홈페이지(<http://bnf.fr>)에 정리의궤 채색도가 공개되어 있다.
- 2) 『경인일보』 2016년 7월 4일자, 7월 5일자, 7월 6일자, 7월 7일자, 7월 8일자, 7월 14일자, 7월 15일자 기사에 복원된 수원화성과 『정리의궤』의 비교기사가 수록되어 있고, 7월 26일 기사에 화성복원 전면 재검토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 3) 원문 “84. The use of all these sources permits elaboration of the specific artistic, historic, social, and scientific dimensions of the cultural heritage being examined. "Information sources" are defined as all physical, written, oral, and figurative sources, which make it possible to know the nature, specificities, meaning, and history of the cultural heritage.”
- 4) 을묘년 정조의 8일간 행차는 세밀한 궁중기록화로 남겨졌다. 『원행음모정리의궤』 재용편에 의하면 행사담당 부서였던 정리소에서 대병(大屏)과 중병(中屏) 각 3좌를 제작하여 궁중에 보냈고, 행사에 참여한 관료들에게도 나누어주었다. 수원행차 그림은 19세기 이후에도 모사작업이 지속되어 국내에 병풍 4좌와 날폭 2점이 전해지고 있다. 병풍은 삼성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우학문화재단에 소장되어 있고, 날폭은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봉수당진찬도> 1점, 삼성미술관에 <환어행렬도> 1점이 소장되어 있다. 일본에는 날폭 6점이 전해지고 있다. 교토대학종합박물관의 <낙남현방방도>, <봉수당진찬도>, <득중정어사도>, <환어행렬도>, <한강주교환어도>와 도쿄예술대학교의 <득중정어사도>가 있다. 김홍도의 작품인 <한정품국>과 <서성우렵>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5) 화성도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으로 ‘수원성도병풍’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다.
- 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 및 조선총독부박물관 수리문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museum.go.kr/>)
- 7) 1970년대 사진자료는 수원화성박물관의 전시도록 『197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기록』 1950년대 미군의 사진자료는 수원화성박물관의 전시도록 『이방인이 본 옛 수원화성』에 다수 수록되어 있다.
- 8) 수원화성박물관, 2013, 197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기록, pp.184-191.
- 9) 이코모스코리아, 2010, 이코모스현장 선언문집, p.25.
- 10) 경기도, 1980, 수원성복원정화지, p.67.
- 11) 경기문화재단, 2005, 화성성역의궤 국역중보판 하, p.584.
- 12) 경기문화재단, 앞의 책, p.583.
- 13) 소화7년(1932)부터 소화8년(1933)에 이루어진 화서문 수리공사에 대한 도면, 설계서, 시방서, 현장일지, 교제부재 조사서, 참여 인부 임금 등에 관련된 기록이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에 공개되어 있다.
- 14) 경기문화재단, 앞의 책, p.579.
- 15) 경기도, 앞의 책, p.64.
- 16) 경기도, 앞의 책, p.65.
- 17) 경기문화재단, 2005, 화성성역의궤 국역중보판 상, p.54.
- 18) 수원시 화성사업소, 2012, 국역 수원부계록 2, p.178.
- 19) 경기문화재단, 앞의 책, p.54.
- 20) 수원시 화성사업소, 2013, 국역 수원부계록 1, pp.127-130.
- 21) 동아일보 1922년 8월 3일, 8월 27일 기사.
- 22) 화홍문 복구공사를 위해 1923년에 제작한 설계도면이 수원화성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23) 경기문화재단, 2005, 화성성역의궤 국역중보판 하, p.526.
- 24) 경기문화재단, 2005, 화성성역의궤 국역중보판 상, p.88.
- 25) 경기문화재단, 앞의 책, p.86.
- 26) 수원시 화성사업소, 2016.10월 발간 예정, 동남각루 수리보고서.
- 27) 이코모스코리아, 2010, 이코모스현장 선언문집, p.26.
- 28) 원문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value attributed to the heritage depends on the degree to which information sources about this value may be understood as credible or truthfu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se sources of information, in relation to original and subsequent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ir meaning, are the requisite bases for assessing all aspects of authenticity.”

2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heritage.unesco.or.kr/>

문헌

- 강 현, 2011, “보존원칙과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 세계유산포럼 자료집, 67-75.
- 경기도, 1980, 수원성복원정화지.
- 경기문화재단(역), 2005, 화성성역의궤 국역증보판, 경기문화재단.
- 김왕직, 2015, “화성 화홍문의 원형고찰”,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계획계, 31(1), 125-132.
- 문화재청, 2014, 수원 화서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 조두원, 2015, “세계유산 보존원칙에 있어 복원과 재 건에 관한 연구”, 세계유산연구, 1, 46-63.
- 수원시 화성사업소, 2000, 세계유산 화성 수리백서.
- 수원시 화성사업소, 2013, 수원화성 수리백서.
- 수원화성박물관, 2010, 사진으로 보는 화성-백년의 여정.
- 수원화성박물관, 2011, 도면에 담긴 우리 건축-마음 으로 그린 꿈 역사로 이어지고.
- 수원화성박물관, 2013, 197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기록.
- 수원화성박물관, 2015, 정조 8일간의 행차.
- 수원화성박물관, 2016, 이방인이 본 옛 수원화성.
- 수원화성박물관(역), 2015, 원행음묘정리의궤 국역증 보판, 수원화성박물관.
- 역사문화연구소(역), 2012, 수원부계록, 수원시 화성 사업소.
- 오선화, 2013, “삼아성건축사사무소 소장 수원화성 도면의 특징과 가치”, 1970년대 수원화성 복 원과 기록, 174-179.
- 옥영정, 2008, “한글본 「명니의궤」의 서지적 분석”, 서 지학연구, 39, 139-168.
- 옥영정, 2009, “「화성성역의궤」의 한글자료에 관한 연 구”, 서지학연구, 42, 5-45.
- 옥영정, 2015, “한글 의궤문헌의 주석 유형과 물명 기 록연구-「명니의궤」 화성성역의 주석을 중심 으로”, 국어사연구, 20, 253-299.
- 이수정, 2012,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진정성 개념의 속성과 변화 고찰”, 문화재, 45, 126-139.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이코모스 현장 선언문집(2010).
- 조유진, 2013, “세계유산협약의 기초개념 연구”, 한남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재현·김숙진, 2015,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특 징와 전망”, 세계유산연구, 1, 1-11.
-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 <http://www.museum.go.kr/>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웹사이트 <http://whc.unesco.org/>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사이트 <http://heritage.unesco.or.kr/>
- 프랑스 국립도서관 웹사이트 [http:// www.bnf.fr/](http://www.bnf.fr/)
- 교신: 오선화, 162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화성사업소 (e-mail: folkpia2@korea.kr)
- Correspondence: Seon Hwa Oh, Suwon City Hwaseong Fortress Management Office, #18, Haenggung-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15260 (e-mail: folkpia2@korea.kr)

투 고 일: 2016년 7월 18일
 심사완료일: 2016년 7월 29일
 투고확정일: 2016년 8월 5일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

한경선* · 김숙진**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UNESCO World Heritage

Kyeong Seon Han* · Sook-Jin Kim**

초 록: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 과정, 등재 현황, 그리고 등재 후 보존 및 관리 방안을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21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이 이루어졌고, 설문지 내용은 크게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 등재에 대한 이해, 등재 영향에 대한 인식,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이해수준의 현주 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생각과 의견은 세계유산의 등재 과정, 등재된 이후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좀 더 구체적 인 측정도구와 지표의 개발로 본 연구에서의 대상이었던 대학생들을 넘어선 온 국민들의 세계유산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세계유산에 대한 정부, 지자체,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 들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이 함께 수용되고 논의될 때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가치는 분명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주요어: 세계유산, 대학생, 인식, 등재, 보존과 관리, 활용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how college students understand the nomination process of World Heritage, the current World Heritage list of Korea, an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We surveyed 212 college students, collecting questionnaires about their interest in World Heritage, their understanding of the nomination process and implication of World Heritage nomination, and their perception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This survey give some implications for how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level of World Heritage and look for effective utilization as well a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Key Words: World Heritage, Perception, Nominat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Utilization

1.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많은 유산들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활발히 등재되고 있다. 최근 남한산성(2014년)과 백제역사지구(2015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우리나라는 총 12건의 세계유산 보유국이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강진 도요지, 염전, 대곡천암각화군,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중부내륙산성군, 외암마을, 낙안읍성, 우

포늬, 한국의 서원, 한양도성, 김해 · 함안 가야고분군,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한국의 전통산사, 서남해안 갯벌이 잠정목록(Tentative List)¹⁾에 등재되어 있다. 이 유산들은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해 국민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그리고 등재 이후의 보존과 관리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세계유산학과(Geography Department, College of Science, Konkuk University, imhks2000@naver.com)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Geography Department, College of Science/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sjkim@konkuk.ac.kr)

을까? 지금까지의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계 유산 등재와 관련된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계유산 인식 조사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들의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즉, 올바르게 성숙한 인식 함양 또한 등재를 위한 노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국민들의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일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중·고등학생보다 좀 더 자유로운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경로로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을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로서 보고 그들의 시선에서 세계유산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

〈표 1〉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등재에 대한 이해	5	0.810
등재 영향에 대한 인식	긍정적 영향	0.638
	부정적 영향	0.634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인식	보존과 관리에 대한 생각	0.788

해 이루어졌다. 서울시에 소재한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10~13일 총 4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건국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설문지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 대상자들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240부를 배부하여 223부를 회수하였고 미완성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총 21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의 문항은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전공 계열, 출신지역)에 대한 4문항,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관심도,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개수, 목록,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한 4문항,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에 대한 이해(잠정목록, 등재를 담당하는 정부기

〈표 2〉 설문지의 구성

문항 영역	질문 내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성 별	1
	학 년	1
	전공계열	1
	출신지역	1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수준	1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개수	1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목록	1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1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에 대한 이해	잠정목록(Tentative List)	1
	등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1
	등재되기까지의 소요기간	1
	매년 등재 신청이 가능한 유산의 개수	1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결과 4단계(등재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1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 영향에 대한 인식	등재의 긍정적인 영향(효과)	6
	등재의 부정적인 영향(문제점)	4
	등재의 필요성 인식수준	1
우리나라 세계유산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1
	세계유산 보존과 관리에 대한 생각	15

관, 등재되기까지의 소요기간, 매년 등재 신청이 가능한 유산의 개수,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결과 4단계)에 대한 5문항,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 영향에 대한 인식(등재와 관련된 긍정적/부정적인 영향, 등재의 필요성)에 대한 11문항, 우리나라 세계유산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인식(우리나라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세계유산 보존과 관리 중요도)에 대한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문항 중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에 대한 이해에 대한 5문항과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 영향에 대한 인식(등재와 관련된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10문항, 우리나라 세계유산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인식에 대한 16문항은 세계 유산과 관련된 기존 연구²⁾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등재에 대한 이해 5문항은 0.810으로 나타났고, 등재 영향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영향 6문항과 부정적 영향 4문항은 각각 0.638, 0.634로 나타났다.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인식의 보존과 관리 중요도 15문항은 0.788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항들은 신뢰도 계수가 0.6이상이므로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4 Program을 사용했다.

2.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1972)에 의거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

<표 3>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 현황

번호	유산목록	유산유형	위치	등재연도	등재기준
1	해인사 장경판전(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the Depositories for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문화유산	경상남도 합천군	1995	(iv), (vi)
2	종묘(Jongmyo Shrine)	문화유산	서울특별시	1995	(iv)
3	석굴암과 불국사(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문화유산	경상북도 경주시	1995	(i), (iv)
4	창덕궁(Changdeokgung Palace Complex)	문화유산	서울특별시	1997	(ii), (iii), (iv)
5	화성(Hwaseong Fortress)	문화유산	경기도 수원시	1997	(ii), (iii)
6	경주 역사 지구(Gyeongju Historic Areas)	문화유산	경상북도 경주시	2000	(ii), (iii)
7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Gochang, Hwasun and Ganghwa Dolmen Sites)	문화유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화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2000	(iii)
8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자연유산	제주특별자치도	2007	(vii), (viii)
9	조선 왕릉(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문화유산	서울특별시, 강원도 영월군, 경기도 여주시 · 구리시 · 화성시 · 파주시 · 양주시 · 고양시 · 김포시 · 남양주시	2009	(iii), (iv), (vi)
10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Historic Villages of Korea : Hahoe and Yangdong)	문화유산	경상북도 안동시 · 경주시	2010	(iii), (iv)
11	남한산성(南漢山城, Namhansanseong)	문화유산	경기도 광주시 · 성남시 · 하남시 일원	2014	(ii), (iv)
12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	문화유산	충청남도 공주시 ·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2015	(ii), (iii)

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에는 유적, 건축물,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장소 등이 해당되며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에는 생물학적 군락, 지질학적 생성물,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서식지 등이 해당된다. 복합유산(Mixed Heritage)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을 의미한다(<http://www.cha.go.kr>).

2016년 6월 현재 전 세계 총 163개국에서 1,031건의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중 문화유산은 802건, 자연유산은 197건, 복합유산은 32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48건, 공동등재 세계유산은 31건이다(<http://heritage.unesco.or.kr>).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은 <표 3>과 같다. 문화유산 11건, 자연유산 1건으로 총 12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설문지에 응답한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남성이 114명(53.8%), 여성이 98명(46.2%)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이 99명(46.7%), 3학년이 40명(18.9%), 1학년이 37명(17.5%), 2학년이 36명(17.0%)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은 공학계열이 57명(26.9%)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과학계열 50명(23.6%), 자연과학계열 44명(20.8%), 인문과학계열 27명(12.7%), 교육학계열 13명(6.1%), 의학계열 12명(5.7%), 예체능계열 9명(4.2%)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은 서울특별시가 98명(4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38명(17.9%),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9명(4.2%), 대구광역시 8명(3.8%),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네 곳이 각각 6명(2.8%)으로 나타났으며,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각각 5명(2.4%), 외국은 4명(1.9%),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각각 3명(1.4%), 강원도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명(0.9%), 세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 목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성	114	53.8
	여성	98	46.2
학 년	1학년	37	17.5
	2학년	36	17.0
	3학년	40	18.9
	4학년	99	46.7
전공계열	인문과학계열	27	12.7
	사회과학계열	50	23.6
	자연과학계열	44	20.8
	공학계열	57	26.9
	교육학계열	13	6.1
	예체능계열	9	4.2
	의학계열	12	5.7
출신지역	서울특별시	98	46.2
	부산광역시	5	2.4
	대구광역시	8	3.8
	인천광역시	6	2.8
	광주광역시	9	4.2
	대전광역시	3	1.4
	울산광역시	3	1.4
	세종특별자치시	0	0
	경기도	38	17.9
	강원도	2	0.9
	충청북도	5	2.4
	충청남도	6	2.8
	전라북도	2	0.9
	전라남도	9	4.2
	경상북도	6	2.8
	경상남도	6	2.8
	제주특별자치도	2	0.9
외 국	4	1.9	
총 계		212명(100%)	

종특별자치시는 0명(0.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66.9%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하는 수도권 출신지역으로 조사되었다.

2)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

(1)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수준

먼저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관심이 전혀 없다	11	5.2
관심이 없다	68	32.1
보통이다	109	51.4
관심이 있다	21	9.9
관심이 매우 있다	3	1.4
총 계 212명(100%)		
관심수준 평균 : 2.70(5점 만점), 표준편차 : 0.774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관심수준 평균

항 목	구 분	평 균	표준 편차	통계량 (유의확률)
성 별	남 성	2.74	0.788	t=0.690 (0.491)
	여 성	2.66	0.759	
학 년	1학년	2.73	0.804	F=0.254 (0.859)
	2학년	2.72	0.615	
	3학년	2.78	0.891	
	4학년	2.66	0.771	
전공 계열	인문과학계열	2.78	0.801	H=2.552 (0.863)
	사회과학계열	2.74	0.751	
	자연과학계열	2.77	0.803	
	공학계열	2.58	0.755	
	교육학계열	2.77	0.439	
	예체능계열	2.67	1.118	
출신 지역	의학계열	2.67	0.888	H=17.279 (0.368)
	서울특별시	2.69	0.765	
	부산광역시	3.00	0.000	
	대구광역시	2.50	0.535	
	인천광역시	2.50	1.225	
	광주광역시	2.44	0.527	
	대전광역시	2.33	0.577	
	울산광역시	2.67	0.577	
	경기도	2.63	0.883	
	강원도	3.00	0.000	
	충청북도	2.40	0.894	
	충청남도	2.67	0.516	
	전라북도	3.50	0.707	
	전라남도	2.56	0.527	
	경상북도	3.50	0.837	
	경상남도	2.83	0.408	
	제주특별자치도	3.50	0.707	
외 국	3.25	1.258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09명(51.4%)으로 가장 많았고,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68명(32.1%),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1명(5.2%),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1명(9.9%), ‘관심이 매우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3명(1.4%)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해 관심을 보인 학생은 24명으로 응답자의 11.3%에 불과했다. 수치로 나타내면 관심도 평균은 2.70(5점 만점), 표준편차는 0.774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수준은 보통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관심수준 평균이 성별, 학년, 전공계열, 출신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독립K-표본검정(비모수검정)을 시행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통상적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별, 학년, 전공계열, 출신지역에 따른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관심수준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개수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개수를 알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개수는 총 12개이고 11개~15개³⁾를 맞춘 것으로 보았다. 조사 결과는 <표 7>과 같다. ‘실제 유산의 개수보다 더 적은 개수’를 선택한 학생은 92명(43.4%), ‘실제보다 더 많은 개수’를 선택한 학생은 69명(32.5%),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개수를 맞춘 학생’은 51명(24.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세계유산 개수를 맞춘 학생은 총 응답자 중 24.1%에 불과했다.

성별, 학년, 전공계열에 따른 우리나라 세계유산 개수에 대한 응답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카이제곱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통상적인 유의수준 0.05보다 전부 크

〈표 7〉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개수에 대한 응답

구 분		빈도(명)	비율(%)
맞춘 학생		51	24.1
틀린 학생	실제보다 더 많은 개수를 선택	69	32.5
	실제보다 더 적은 개수를 선택	92	43.4
총 계 212명(100%)			

〈표 8〉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우리나라 세계유산 개수에 대한 응답

항목	구분	맞춘학생	틀린 학생	통계량 (유의확률)
성별	남성	26(22.8%)	88(77.2%)	$X^2 = 0.211$ (0.646)
	여성	25(25.5%)	73(74.5%)	
학년	1학년	6(16.2%)	31(83.8%)	$X^2 = 1.779$ (0.619)
	2학년	10(27.8%)	26(72.2%)	
	3학년	11(27.5%)	29(72.5%)	
	4학년	24(24.2%)	75(75.8%)	
전공 계열	인문과학 계열	9(33.3%)	18(66.7%)	$X^2 = 4.962$ (0.549)
	사회과학 계열	8(16.0%)	42(84.0%)	
	자연과학 계열	12(27.3%)	32(72.7%)	
	공학계열	15(26.3%)	42(73.7%)	
	교육학 계열	4(30.8%)	9(69.2%)	
	예체능 계열	1(11.1%)	8(88.9%)	
	의학계열	2(16.7%)	10(83.3%)	

계 나타났으므로 성별, 학년, 전공계열에 따라 우리나라 세계유산 개수에 대한 응답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3) 우리나라 세계유산 목록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총 12개를 제시한 후 이 중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유산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응답자 212명 중 193명(92.3%)이 석굴암과 불국사가 세계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해인사 장경판전이 165명(78.9%), 화성이 141명(67.5%), 종묘가 139명(66.5%),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이 124명(59.3%), 남한산성이 76명(36.4%), 경주역사지구가 75명(35.9%),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75명(35.9%), 조선 왕릉이 57명(27.3%),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안동이 56명(26.8%), 창덕궁이 53명(25.4%), 백제역사유적지구가 33명(15.8%)순으로 나타났다.

(4)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표 9〉 알고 있었던 세계유산에 대한 응답

구분	빈도 (명)	비율 (%)	응답자 중 비율(%)	순위
해인사 장경판전	165	13.9	78.9	2
종묘	139	11.7	66.5	4
석굴암과 불국사	193	16.3	92.3	1
창덕궁	53	4.5	25.4	11
화성	141	11.9	67.5	3
경주역사지구	75	6.3	35.9	7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124	10.4	59.3	5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75	6.3	35.9	8
조선 왕릉	57	4.8	27.3	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안동	56	4.7	26.8	10
남한산성	76	6.4	36.4	6
백제역사유적지구	33	2.8	15.8	12
총 계 1187(100%)				

〈표 10〉 유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구분	빈도(명)	비율(%)	응답자 중 비율(%)
인터넷	83	33.1	39.2
TV	89	35.5	42.0
세계유산 방문 현장	20	8.0	9.4
지인	4	1.6	1.9
책	10	4.0	4.7
수업	45	17.9	21.2
총 계 251(100%)			

는 <표 10>과 같다. 응답자 중 ‘TV(다큐멘터리, 뉴스, 예능 프로그램 등)’를 통해 정보를 얻는 학생이 89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검색엔진, 블로그, 웹사이트 등)’이 83명(39.2%), ‘수업(학교나 학원에서의 강의 등)’이 45명(21.2%), ‘세계유산 방문 현장(안내책자, 안내판, 해설자 등)’이 20명(9.4%), ‘책(세계유산 관련 서적 등)’10명(4.7%)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중 TV와 인터넷이 68.6%에 달했다. 따라서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대중매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에 대한 이해수준을 알

<표 11>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에 대한 이해수준

구 분	5개 문항 (Cronbach's $\alpha=0.810$)										
	잠정목록		등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등재되기까지의 소요기간		매년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산의 개수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결과 4단계 (등재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모른다	109	51.4	74	34.9	90	42.5	112	52.8	98	46.2	
모른다	74	34.9	87	41.0	101	47.6	88	41.5	72	34.0	
보통이다	28	13.2	39	18.4	16	7.5	9	4.2	33	15.6	
알고있다	1	0.5	12	5.7	5	2.4	3	1.4	9	4.2	
매우 잘 알고있다	0	0	0	0	0	0	0	0	0	0	
이해 수준	평균	1.63		1.95		1.70		1.54		1.78	
	표준편차	0.727		0.872		0.711		0.648		0.861	
총 계 212명(100%)											
이해수준 평균: 1.72(5점 만점), 표준편차: 0.579											

<표 12>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등재 이해수준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유의확률)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유의확률)
성별	남성	1.69	0.606	t=-0.891 (0.374)	출신 지역	서울특별시	1.73	0.560	H=21.861 (0.148)
	여성	1.76	0.548			부산광역시	2.00	0.678	
학년	1학년	1.79	0.481	F=0.539 (0.656)		대구광역시	1.80	0.18	
	2학년	1.78	0.514			인천광역시	1.63	0.446	
	3학년	1.71	0.640			광주광역시	1.49	0.575	
	4학년	1.67	0.612			대전광역시	1.47	0.643	
전공 계열	인문과학계열	1.79	0.607	H=2.966 (0.813)		울산광역시	1.87	0.757	
	사회과학계열	1.64	0.519			경기도	1.64	0.532	
	자연과학계열	1.82	0.630			강원도	1.20	0.283	
	공학계열	1.71	0.580			충청북도	1.52	0.642	
	교육학계열	1.72	0.592			충청남도	1.73	0.689	
	예체능계열	1.60	0.671			전라북도	2.10	0.141	
	의학계열	1.65	0.554			전라남도	1.62	0.533	
				경상북도		2.30	1.026		
				경상남도	1.27	0.432			
				제주특별자치도	2.30	0.424			
				외국	2.45	0.526			

아보기 위해 잠정목록(Tentative List),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세계유산이 등재되기까지의 소요시간, 매년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산의 개수,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결과 4단계(등재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에 대해 알고 있는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결과는 <표 11>과 같다.

‘등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이해수준’은 1.95,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결과 4단계에 대한 이해수준’은 1.78, ‘등재되기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한 이해수준’은 1.70, ‘잠정목록에 대한 이해수준’은 1.63, ‘매년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산의 개수에 대한 이해수준’은 1.54로 나타났고 총 이해수준 평균은 1.72(5점 만점)로 낮게 조사되었다.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이해수준 평균이 성별, 학년, 전공계열, 출신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독립K-표본검정(비모수검정)을 시행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통상적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성별, 학년, 전공계열, 출신지역에 따른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이해수준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4) 세계유산 등재 영향에 대한 인식

(1) 세계유산 등재의 긍정적인 영향(효과)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의 긍정적인 영향(등재로 인한 효과) 중 대표적인 영향 6개를 설문문항으로 만들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

<표 13> 등재의 긍정적인 영향(효과)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문항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5점 만점)
1	보존 상태 개선	4.41
2	인지도와 관심 증가	4.21
3	재정적 · 기술적 지원	4.02
4	지역경제 활성화	3.99
5	자부심 · 자긍심 고취	3.97
6	고용기회 창출	3.72

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고용기회 창출’은 3.72, ‘지역경제 활성화’는 3.99, ‘유산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인지도와 관심 증가’는 4.21, ‘유산의 보존 상태 개선’은 4.41, ‘국제기구로부터의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은 4.02, ‘국가의 자부심 고취 · 국민의 자긍심 제고’는 3.97로 나타났다.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6개의 문항을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유산의 보존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응답자들은 이러한 점을 긍정적인 영향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유산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인지도와 관심 증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다음으로는 ‘국제기구로부터의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의 자부심 고취 · 국민의 자긍심 제고’, ‘고용기회 창출’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계유산 등재의 부정적인 영향(문제점)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의 부정적인 영향(등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중 대표적인 영향 4개를 설문문항으로 만들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교통시설, 숙박시설, 먹거리 등 편의시설 설치로 주변 경관 훼손’은 4.17, ‘물리적 접촉과 압력에 의한 유산 훼손’은 4.31, ‘잘못된 행동, 소란, 장소의 정신

<표 14>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의 긍정적인 영향(효과)

구분	6개 문항 (Cronbach's $\alpha=0.638$)											
	고용기회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인지도와 관심 증가		보존 상태 개선		재정적 · 기술적 지원		자부심 · 자긍심 고취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0	0.0	0	0.0	0	0.0	0	0.0	3	1.4
중요하지 않다	11	5.2	8	3.8	3	1.4	3	1.4	8	3.8	8	3.8
보통이다	64	30.2	37	17.5	23	10.8	12	5.7	43	20.3	47	22.2
중요하다	111	52.4	116	54.7	112	52.8	93	43.9	98	46.2	89	42.0
매우 중요하다	26	12.3	51	24.1	74	34.9	104	49.1	63	29.7	65	30.7
평균	3.72		3.99		4.21		4.41		4.02		3.97	
표준편차	0.745		0.754		0.687		0.664		0.808		0.99	
총 계 212명(100%)												

<표 15>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의 부정적인 영향(문제점)

구 분	4개 문항 (Cronbach's $\alpha=0.634$)							
	주변 경관 훼손		물리적 접촉과 압력에 의한 유산 훼손		관광객과 주민간의 갈등		정부·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2	0.9	1	0.5	0	0.0
중요하지 않다	4	1.9	3	1.4	7	3.3	4	1.9
보통이다	30	14.2	19	9.0	54	25.5	42	19.8
중요하다	103	48.6	92	43.4	107	50.5	100	47.2
매우 중요하다	75	35.4	96	45.3	43	20.3	66	31.1
평 균	4.17		4.31		3.87		4.08	
표준편차	0.737		0.770		0.786		0.763	
총 계 212명(100%)								

<표 16> 등재의 부정적인 영향(문제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문 항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5점 만점)
1	물리적 접촉과 압력에 의한 유산 훼손	4.31
2	주변 경관 훼손	4.17
3	정부·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	4.08
4	관광객과 주민간의 갈등	3.87

훼손과 같은 관광객과 주민간의 갈등'은 3.87, '유산보존을 명분으로 한 주민들의 강제 이주와 같은 정부·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은 4.08로 나타났다.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4개의 문항을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물리적 접촉과 압력에 의한 유산 훼손'을 등재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시설, 숙박시설, 먹거리 등 편의시설 설치로 주변 경관 훼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산보존을 명분으로 한 주민들의 강제 이주와 같은 정부·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 '잘못된 행동, 소란, 장소의 정신 훼손과 같은 관광객과 주민간의 갈등'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대학생들은 세계유산 등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결과는 <표 17>과 같다. '필요하

<표 17>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0.5
필요하지 않다	4	1.9
보통이다	28	13.2
필요하다	125	59.0
매우 필요하다	54	25.5
총 계 212명(100%)		
등재 필요성 인식수준 평균: 4.07(5점 만점), 표준편차: 0.709		

다'고 응답한 학생은 125명(59.0%)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하다'는 54명(25.5%)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보통이다'는 28명(13.2%), '필요하지 않다'는 4명(1.9%), '전혀 필요하지 않다' 1명(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 인식수준은 4.07(5점 만점)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세계유산 등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 필요성 인식수준 평균이 성별, 학년, 전공계열, 출신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독립K-표본검정(비모수검정)을 시행한 결과 <표 18>과 같이 나타났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통상적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별, 학년, 전공계열, 출신지역에 따른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 필요성 인식수준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18〉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등재 필요성 인식수준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통계량 (유의확률)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통계량 (유의확률)
성 별	남 성	4.04	0.775	t=-0.790 (0.431)	출신 지역	서울특별시	4.12	0.614	H=23.419 (0.103)
	여 성	4.11	0.624			부산광역시	3.40	0.548	
학 년	1학년	4.08	0.640	F=1.460 (0.227)		대구광역시	4.38	0.744	
	2학년	3.92	0.732			인천광역시	4.00	0.632	
	3학년	4.25	0.588			광주광역시	4.22	0.667	
	4학년	4.05	0.761			대전광역시	4.33	0.577	
전공 계열	인문과학계열	4.30	0.724	H=7.249 (0.298)		울산광역시	4.00	1.000	
	사회과학계열	3.98	0.742			경기도	3.87	0.875	
	자연과학계열	4.05	0.645			강원도	4.00	0.000	
	공학계열	4.16	0.621			충청북도	3.40	0.548	
	교육학계열	4.00	0.577			충청남도	4.50	0.548	
	예체능계열	3.78	0.833			전라북도	4.00	0.000	
	의학계열	3.92	1.084			전라남도	4.00	1.000	
				경상북도		4.17	0.753		
				경상남도		4.00	0.632		
				제주특별자치도		4.50	0.707		
				외 국	4.75	0.500			

〈표 19〉 등재 필요성에 대한 생각

<p>등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의견</p>	<p>등재는 우리나라 유산이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공인하는 것이다, 유산이란 우리나라 국민의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이미지는 유산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 등재는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의 객관적인 증거로서 주변국가와 세계에 유산 등재를 통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릴 기회가 된다,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에 알리고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유산은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미래의 문화재 침략에 대비하는 공인적인 성격의 방어 기법이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산의 소유권을 인정받고 싶다, 우리나라 역사의 우수함을 알리고 싶다, 문화재 우월성의 척도로 여겨지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역사의식을 제고시킨다,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때문이다, 등재되면 보존에 더 힘쓸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문화와 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 외국 관광객 유치로 국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유산들이 등재된다면 무척 자랑스러울 것 같다, 국가 이미지 상승에 기여한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 타국과 유산 관련 분쟁에서 유리해질 것 같다, 우리나라 유산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 미래자원으로서 유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유산이 훼손되기 전에 등재를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산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등재가 되어야 그나마 관심이 증가하고 유산이 보호받을 것 같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자국민의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커 보인다, 아름답고 과학적인 유산이 많기 때문이다, 후손들에게 좋은 상태로 물려주기 위해 필요하다, 국가 위상이 높아질 것 같다,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는 가치가 높은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외국 관광객 유치가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효과적일 것 같다, 유산에 대한 심도 있는 보존·관리를 위해, 우리 유산의 가치를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p>
<p>중간 의견</p>	<p>등재 여부를 떠나 모든 유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유산이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편이 좋다, 지역주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국가의 의견을 적절히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후에 등재가 필요하다, 등재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커 보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등재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세계유산 등재로 인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영향력이 큰지 모르겠다, 등재 전에 관광객의 관람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유산 등재가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p>
<p>등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의 의견</p>	<p>우리가 스스로 유산의 가치를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 세계적인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 등재되어 있는 유산으로 충분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유산의 등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 세계적인 유산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유산이 규모면에서 작다는 생각이 든다, 등재는 보여주기 식에 불과한 것 같다, 정치적으로 이용될까봐 걱정 된다</p>

<표 20> 세계유산 관리 정부기관에 대한 응답

구 분	빈도(명)	비율(%)
세계유산을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관리하는지 몰랐다	52	24.5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문화재청인지 몰랐다	121	57.1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9	18.4
총 계 212명(100%)		

설문지에 등재 필요성에 대한 각각의 응답에 따른 이유를 적도록 하였고, 그 의견들을 <표 19>에 정리해 보았다.

5) 세계유산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인식

(1) 우리나라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20>과 같았다. ‘세계유산을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관리하는지 몰랐다’고 응답한 학생은 52명(24.5%)이었고,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문화재청인지 몰랐다’고 응답한 학생은 121

명(5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39명(18.4%)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75.5%가 등재된 세계유산을 정부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기관이 문화재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응답자는 18.4%에 불과했다.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2) 세계유산 보존과 관리에 대한 생각

세계유산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총 14개 문항의 보존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각 문항의 중요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결과는 <표 21>과 같다. 14개 문항의 중요도 순위를 살펴보면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유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문항의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바른 정비와 복원 방향 설정’ 문항의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은 4.42,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과 제도 정비’ 문항의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은 4.35, ‘행

<표 21>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인식

문 항	구 분	빈도(명)	비율(%)	평 균	표준편차	신뢰계수
유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4.44	0.569	0.788
	중요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8	3.8			
	중요하다	102	48.1			
	매우 중요하다	102	48.1			
올바른 정비와 복원 방향 설정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4.42	0.598	
	중요하지 않다	1	0.5			
	보통이다	9	4.2			
	중요하다	103	48.6			
	매우 중요하다	99	46.7			
행정적 관리 체계 마련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4.25	0.665	
	중요하지 않다	2	0.9			
	보통이다	21	9.9			
	중요하다	112	52.8			
	매우 중요하다	77	36.3			
주변 경관까지 함께 고려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95	0.736	
	중요하지 않다	4	1.9			
	보통이다	51	24.1			
	중요하다	109	51.4			
	매우 중요하다	48	22.6			

〈표 21〉 계속

문항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신뢰계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과 제도 정비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4.35	0.661	0.788
	중요하지 않다	0	0.0			
	보통이다	22	10.4			
	중요하다	94	44.3			
	매우 중요하다	96	45.3			
홍보 관련 시스템 필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76	0.803	
	중요하지 않다	12	5.7			
	보통이다	63	29.7			
	중요하다	100	47.2			
	매우 중요하다	37	17.5			
지속적인 학술 조사 연구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93	0.732	
	중요하지 않다	4	1.9			
	보통이다	52	24.5			
	중요하다	110	51.9			
	매우 중요하다	46	21.7			
일반인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필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0.9	3.89	0.935	
	중요하지 않다	12	5.7			
	보통이다	57	26.9			
	중요하다	77	36.3			
	매우 중요하다	64	30.2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보존과 관리	전혀 중요하지 않다	3	1.4	3.60	0.976	
	중요하지 않다	25	11.8			
	보통이다	67	31.6			
	중요하다	76	35.8			
	매우 중요하다	41	19.3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시설물 (박물관, 안내 간판 등) 설치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3.92	0.792	
	중요하지 않다	9	4.2			
	보통이다	49	23.1			
	중요하다	105	49.5			
	매우 중요하다	49	23.1			
일반인을 위한 공개 시설물 (조망대, 체험 학습장 등) 설치	전혀 중요하지 않다	3	1.4	3.62	0.938	
	중요하지 않다	20	9.4			
	보통이다	70	33.0			
	중요하다	80	37.7			
	매우 중요하다	39	18.4			
유산의 신비로운 장소의 정신 보호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2.4	3.34	0.977	
	중요하지 않다	35	17.0			
	보통이다	79	37.3			
	중요하다	66	31.1			
	매우 중요하다	26	12.3			

〈표 21〉 계속

문항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신뢰계수
물리적 접촉 및 압력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 설치	전혀 중요하지 않다	6	2.8	3.73	0.987	0.788
	중요하지 않다	13	6.1			
	보통이다	64	30.2			
	중요하다	78	36.8			
	매우 중요하다	51	24.1			
교육·학습 수단 필요 (유산 관련 서적, 강좌개설 등)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0.9	3.92	0.842	
	중요하지 않다	7	3.3			
	보통이다	51	24.1			
	중요하다	98	46.2			
	매우 중요하다	54	25.5			
학생들을 위한 답사·수학여행 코스로의 활용	전혀 중요하지 않다	7	3.3	3.56	1.003	
	중요하지 않다	23	10.8			
	보통이다	63	29.7			
	중요하다	83	39.2			
	매우 중요하다	36	17.0			
총 계 212명(100%)						

〈표 22〉 보존과 관리에 대한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문항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5점 만점)
1	유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4.44
2	올바른 정비와 복원 방향 설정	4.42
3	보존과 관리에 관련 법과 제도 정비	4.35
4	행정적 관리 체계 마련	4.25
5	주변 경관까지 함께 고려	3.95
6	지속적인 학술 조사 연구	3.93
7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시설물 설치 (박물관, 안내 간판 등)	3.92
8	교육·학습 수단 필요 (유산 관련 책, 강좌개설 등)	3.92
9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필요	3.89
10	홍보 관련 시스템 필요	3.76
11	물리적 접촉 및 압력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 설치	3.73
12	일반인을 위한 공개 시설물 (조망대, 체험 학습장 등)	3.62
13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보존과 관리	3.60
14	학생들을 위한 답사·수학 여행 코스로의 활용	3.56
15	유산의 신비로운 장소의 정신 보호	3.34

정적 관리 체계 마련'문항의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은 4.25, '주변 경관까지 함께 고려'문항의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은 3.95, '지속적인 학술 조사 연구'문항의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은 3.93,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시설물 설치(박물관, 안내 간판 등)' 문항의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은 3.92, '교육·학습 수단 필요(유산 관련 책, 강좌개설 등)' 문항의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은 3.92,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필요' 문항의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은 3.89, '홍보 관련 시스템 필요' 문항의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은 3.76, '물리적 접촉 및 압력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 설치'문항의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은 3.73, '일반인을 위한 공개 시설물(조망대, 체험 학습장 등)' 문항의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은 3.62,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보존과 관리' 문항의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은 3.60, '학생들을 위한 답사·수학여행 코스로의 활용' 문항의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은 3.56, '유산의 신비로운 장소의 정신 보호' 문항의 중요성 인식수준 평균은 3.34로 나타났다.

4. 고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조사

를 실시하였고,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수준은 2.70(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유산 개수를 맞춘 대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24.1%에 불과했다. 대학생들의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과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 중 92.3%가 석굴암과 불국사를 세계유산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해인사 장경판전이 78.9%, 화성이 67.5%, 종묘가 66.5%,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이 59.3%, 남한산성이 36.4%, 경주역사지구가 35.9%,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35.9%, 조선 왕릉이 27.3%,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안동이 26.8%, 창덕궁이 25.4%, 백제역사유적지구 15.8%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유산별 인지수준이 등재연도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남한산성의 경우 등재가 최근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36.4%가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석굴암과 불국사의 경우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세계유산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각각의 세계유산의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산별 홍보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대학생들이 유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 TV와 인터넷이 68.6%를 차지했다. 따라서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대중매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등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이해수준은 1.95(5점 만점),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결과 4단계에 대한 이해수준은 1.78(5점 만점), 등재되기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한 이해수준은 1.70(5점 만점), 잠정목록에 대한 이해수준은 1.63(5점 만점), 매년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산의 개수에 대한 이해수준은 1.54(5점 만점)로 나타났고 총 이해수준 평균은 1.72(5점 만점)로 낮게 조사되었다.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등재의 긍정적인 영향(효과)으로 제시된 6분항 중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는 유산의 보존 상태 개선, 유산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인지도와 관심 증가, 국제기구로부터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의 자부심 고취·국민의 자긍심 제

고, 고용기회 창출 순이었다. 등재의 부정적인 영향(문제점)으로는 제시된 4분항 중에서 물리적 접촉과 압력에 의한 유산 훼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시설, 숙박시설, 먹거리 등 편의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 유산보존을 명분으로 한 주민들의 강제 이주와 같은 정부·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 잘못된 행동, 소란, 장소의 정신 훼손과 같은 관광객과 주민간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유산 자체의 보존 상태 개선을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하고 있었고, 가장 부정적인 영향 또한 유산 자체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 인식수준은 4.07(5점 만점)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세계유산 등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등재가 이루어지면 유산 보존과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75.5%가 등재된 세계유산을 정부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기관이 문화재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응답자는 18.4%에 불과했다.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보존과 관리에 대해 제시된 14분항 중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는 유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올바른 정비와 복원 방향 설정,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과 제도 정비, 행정적 관리 체계 마련, 주변 경관까지 함께 고려, 지속적인 학술 조사 연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시설물 설치(박물관, 안내간판 등), 교육·학습 수단 필요(유산 관련 책, 강좌개설 등),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필요, 홍보 관련 시스템 필요, 물리적 접촉 및 압력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 설치, 일반인을 위한 공개 시설물(조망대, 체험 학습장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보존과 관리, 학생들을 위한 답사·수학여행 코스로의 활용, 유산의 신비로운 장소의 정신 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세계유산 자체의 보존과 관리를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신지역에 따른 표본 수가 너무 적어 출신지역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각 세계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출신 학생들이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보다 그 지역에 소재한 세계유산을 더 잘 알고 있는지(출신지역에 따른 세계유산 목록 인지수준) 분석을 실시하고 싶었으나, 출신지역에 따른 표본 수가 너무 적어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둘째, 설문지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이해수준, 등재로 인한 긍정적/부정적인 영향,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방향에 관한 문항은 극히 일부만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유산의 등재 기준, 유산의 탁월한 보편성과 진정성, 완전성에 대한 인식문항이 설문지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기존 연구된 측정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설문문항을 만드는 데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셋째, 연구대상이 대학생으로 국한되어 전반적인 국민들의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측정도구와 지표가 개발되고, 출신지역에 따른 표본 수를 더 많이 확보하고,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혀 조사를 수행한다면,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 과정부터 등재 현황, 그리고 등재 후 보존 및 관리 방안을 대학생들의 관점으로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수준은 2.70(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 유산 개수를 맞춘 대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24.1%에 불과했다. 셋째, 대학생 중 92.3%가 석굴암과 불국사를 세계유산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해인사 장경판전이 78.9%, 화성이 67.5%, 종묘가 66.5%,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이 59.3%, 남한산성이 36.4%, 경주역사지구가 35.9%,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35.9%, 조선 왕릉이 27.3%,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안동이

26.8%, 창덕궁이 25.4%, 백제역사유적지구 15.8%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들이 유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 TV와 인터넷이 68.6%를 차지했다. 다섯째, 등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이해수준은 1.95(5점 만점),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결과 4단계에 대한 이해수준은 1.78(5점 만점), 등재되기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한 이해수준은 1.70(5점 만점), 잠정목록에 대한 이해수준은 1.63(5점 만점), 매년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산의 개수에 대한 이해수준은 1.54(5점 만점)로 나타났고 총 이해수준 평균은 1.72(5점 만점)로 낮게 조사되었다. 여섯째, 등재의 긍정적인 영향(효과)으로 제시된 6문항 중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는 유산의 보존 상태 개선, 유산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인지도와 관심 증가, 국제기구로부터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의 자부심 고취·국민의 자긍심 제고, 고용기회 창출 순이었다. 일곱째, 등재의 부정적인 영향(문제점)으로는 제시된 4문항 중에서 물리적 접촉과 압력에 의한 유산 훼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시설, 숙박시설, 먹거리 등 편의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 유산보존을 명분으로 한 주민들의 강제 이주와 같은 정부·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 잘못된 행동, 소란, 장소의 정신 훼손과 같은 관광객과 주민간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 인식수준은 4.07(5점 만점)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세계유산 등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홉째, 전체 응답자 중 75.5%가 등재된 세계유산을 정부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기관이 문화재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응답자는 18.4%에 불과했다. 열째, 보존과 관리에 대해 제시된 14문항 중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는 유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올바른 정비와 복원 방향 설정,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과 제도 정비, 행정적 관리 체계 마련, 주변 경관까지 함께 고려, 지속적인 학술 조사 연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시설물 설치(박물관, 안내 간판 등), 교육·학습 수단 필요(유산 관련 책, 강좌개설 등),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필요, 홍보 관련 시스템 필요, 물리적 접촉 및 압력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 설치, 일반인을 위한 공개 시설물(조망대, 체험 학습장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보존과 관리, 학생들을 위한 답사·수학여행 코스로의 활용, 유산의 신비로운 장소의 정신 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열한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관심수준, 세계유산 개수에 대한 응답 분포, 등재에 대한 이해수준, 등재 필요성 인식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측정도구와 지표의 개발로 국민들의 세계유산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식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세계유산의 등재 과정, 등재된 이후의 보존과 관리, 세계유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계유산에 대한 정부, 지자체,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의견이 함께 수용되고 논의될 때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가치가 분명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주

- 1) 잠정목록(Tentative Lists)이란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후보 명단을 말한

다. 각 나라들은 이 목록 가운데에서 세계유산의 등재를 신청하게 된다(<https://ko.wikipedia.org/wiki/>).

- 2) 이영문, 2010, “고인돌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의미와 그 영향”, 마한백제문화, 18, 63-89. 참고.
- 3) 응답자가 석굴암과 불국사, 하회와 양동을 각각 셀 수 있기 때문에 오차를 생각하여 정하였다.

참고문헌

문화재청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유네스코와 유산 웹사이트

<http://heritage.unesco.or.kr/>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교신: 김숙진,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이메일: sjkim@konkuk.ac.kr)

Correspondence: Sook-Jin Kim, Dept. of Geography, Colledge of Science,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05029(e-mail: sjkim@konkuk.ac.kr)

투 고 일: 2016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16년 8월 8일

투고확정일: 2016년 8월 9일

세계유산연구소 및 세계유산학과 소식 (2016.1. ~ 2016.8.)

- 2016년 1월 11일 건국대 세계유산학과·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MOU 체결
- 2016년 1월 최재현, 박종관, 홍현철, 김숙진, 이상현, 유동환, 조두원 (세계유산연구소 참여 교수)는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에 참여
- 2016년 3월 1일 키쇼 라오(Kishore Rao) 前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소장, 건국대학교 세계유산학과 초빙교수 임명
- 2016년 3월 29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세계유산학과·KU국제개발협력원 주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前 소장 키쇼 라오(Kishore Rao)박사 초청 특강' 실시
- 2016년 3월 31일 건국대학교·유네스코한국위원회 MOU 체결
- 2016년 3월 ~ 2017년 2월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등재신청서 학술 용역 ((사)ICOMOS 한국위원회 수행 학술)에 최재현 교수(연구책임자), 오소미(연구간사) 참여
- 2016년 7월 10일 ~ 18일 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유진(세계유산학과 박사과정) 보고관으로 활동
- 2016년 8월 제 1회 세계유산학과 졸업생 배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MOU체결



Kishor Rao 소장 건국대 초빙교수 임명



건국대학교·유네스코한국위원회 MOU 체결

- 세계유산학 전공 대학원생 입학
 - 2014년 후기: 김향림(박사), 김귀배, 공성현, 조아라, 정재윤, 김한규, 김지은(이상 석사)
 - 2015년 전기: 조유진, 김수정, 임권웅, 안승호(이상 박사)
 - 2015년 후기: 오선화(박사), 오소미(석사)
 - 2016년 전기: 민선홍(박사)
 - 2016년 후기: 김귀배(박사)
- 세계유산학 전공 대학원생 졸업
 - 2016년 후기: 김귀배(석사),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제도적 기반과 쟁점 분석
 - 2016년 후기 조아라(석사),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 수원화성과 남한산성의 비교를 통해
- 2016년부터 운영하는 개편 세계유산 교육과정

▶ 세계유산학과(학과간 학과) 교과과정 로드맵

전공분야	세계유산 (세계유산보존, 세계유산활용 전공)
졸업요건	학기등록, 학점취득, 종합시험통과, 학위논문 통과



2014년 2학기 ~ 2016년 1학기 개설교과목

년도 학기	교과목 명	담당교수
2014년 2학기	문화관광론	홍현철
	현장연구세미나	박종관
	세계유산입문	최재현
	세계유산지리학	김숙진
	세계유산건축학	조두원
2015년 1학기	세계유산세미나	최재현
	문화관광세미나	홍현철
	지속가능발전론	박종관
	세계유산지리	김숙진
	보존이론	조두원
2015년 2학기	종교학세미나	최재현
	문화유산론	송기형
	세계유산활용입문	홍현철
	보존관리계획론	조두원
	역사건축세미나	이상헌
2016년 1학기	도시발달과세계유산역사도시	최재현
	GIS 기초와 응용	홍현철
	세계유산과 지역발전	김숙진
	유럽과 북미 세계유산연구	송기형
	역사도시 보존이론	조두원

•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journalworldheritag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세계유산연구소 학술지 편집 규정

제1장 총 칙

- 제 1조 (명칭) 본 규정은 '세계유산연구소 학술지 편집 규정'이라 한다.
- 제 2조 (목적) 본 규정은 '세계유산연구소'가 발행하는 '세계유산연구(Journal of World Heritage)'(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 제 3조 (설치)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 4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 5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등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제 6조 (회의)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투 고

- 제 7조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세계유산연구소 연구원에 한한다. 단, 세계유산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만한 논문의 경우에는 비회원일지라도 투고할 수 있다.
- 제 8조 (투고의 종류 및 양)
- ① 투고의 종류는 세계유산학 분야의 논문, 단보, 자료, 비평, 서평 등으로 한다.
가. 논문: 창의적 연구결과,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동향·전망을 학술 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
나. 단보: 논문의 내용에 준하는 연구의

중간 보고적 성격을 띤 것.

- 다. 자료: 학계에 소개할 가치가 있는 조사기록, 통계, 지도 등의 자료
- 라. 비평: 저서, 논문, 단보, 서평 등의 내용에 대한 학술적인 비평 및 논평
- 마. 서평: 국내외의 신간 서적에 대한 소개 및 논평
- ②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③ 논문은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210*297mm)로 국문 10매(영문 12매) 내외, 단보·자료·비평은 5매 내외, 서평은 2매를 기준으로 한다. (글자체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로 하고, 용지여백은 위 20mm, 머리말 15mm,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15mm, 아래쪽과 꼬리말은 각각 15mm로 한다.)

- 제 9조 (투고일) 투고마감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투고된 원고가 많을 때는 투고된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순연하여 게재한다.

제10조 (원고 집필 요령)

- ① 논문은 표지(제목, 저자), 요약문, 본문, 주, 참고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단보의 경우는 요약문과 주를 첨부할 수 있다.
- ② 투고되는 모든 논문, 단보, 자료, 비평, 서평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제목과 저자명, 저자의 소속기관명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필자의 소속 앞에 기재하도록 한다.
- ③ 국문논문의 경우,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작성한다.
- ④ 모든 논문은 400자 내외의 요약문(abstract)과 200단어 내외의 영문 abstract, 그리고 5개 내외의 주요어(key words)를 첫 페이지

지에 첨부한다.

- ⑤ 학술용어, 인명 및 지명의 국문용어 뒤에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용어에 한하여 ()속에 넣는다.
- ⑥ 항목의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1)

(1)

①

- ⑦ 주는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본문 다음에 별도로 일괄 작성한다.
- ⑧ 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한 쪽수(page)를 밝힐 수 있다.
 - 가. 단독연구: 최재현(2006)에 의하면..., 이해은(2011)에 의하면..., 이들 연구(최재현, 2006; 이해은, 2011)에 의하면..., ...라는 견해도 있다(Lowenthal, 1979; Hannabuss, 1999)
 - 나. 공동연구: 최재현 · 이해은(2013)은 ..., Thorsell and Sigaty(2001)은 ... [2명의 경우], 강동진 등(2013)은 ..., Robins et al.(2000)은 ...[3명 이상의 경우]
- ⑨ 참고문헌은 주와 같이 일괄 작성하여 제출하며,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 가. 참고문헌의 나열은 국문문헌, 일본어 문헌 · 중국어문헌, 구문(歐文)문헌, internet web자료의 순으로 하며, 국문과 일본어 · 중국어 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모음(字母音) 순으로 하고, 구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국내고문헌은 국문문헌의 말미에 오도록 한다.
 - 나.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를 기입한다.
 - 다. 공동저자의 경우에는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라도 모든 저자를 열거한다.
 - 라. 그 밖의 참고문헌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저 서]

- 문화재청편집부, 2007, 한국의 세계유산, 놀와, 서울.
- 조운승 · 정주년 · 신용달, 2011, (읽고 찾아가는 101) 세계유산, 신달, 서울.
- Pedersen, A. 2002, *Managing Tourism at World Heritage Sites: A Practical Manual for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Paris: UNESCO.
- Pearson, M. and Sulivan, S. 1995, *Looking After Heritage Places*.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ublishing.
- Robinson, M., Evans, N., Long, P., Sharpely, R. and Swabrookes, J.(eds), 2000, *Tourism and Heritage Relationships: Global, National and Local Perspectives*. Sunderland: Centre for Travel and Tourism in association with Business Education Publishers.

[논 문]

- 이혜은, 2013, “모더니즘의 대표적 도시, 세계유산 브라질리아의 명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 1-11.
- Rodwell, D, 2004,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the exemplary management of complex heritage sites. *Journal of Architectural Conservation*, 3, 40-60.

[참고문헌]

-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매뉴얼(2005).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이코모스 현장 선언문집(2010).

[보고서]

- 남한산문화관광사업단, 2012, 남한산성 무형문화유산 학술연구보고서.

[번역서]

- 조행복(역), 2013, 세계유산: 인류를 위한 혜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UNESCO, 2012, *World Heritage: Benefits Beyond Borders*, France, UK).

- ⑩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의 결론 다음에 오도록 한다.
- ⑪ 투고되는 모든 논문, 단보, 자료, 비평, 서평에는 영문으로 제목과 저자명을 밝혀야 한다.
- ⑫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 대한

기재 내용은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Corresponding author: Gil-Dong Hong,
Department of Geography,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
gu, Seoul 143-701, Korea

Phone: +82-2-450-3380, Fax: +82-2-3436-
5433

E-mail: kdhong@konkuk.ac.kr

제11조 (그림과 표의 작성)

- ① 그림(지도, 사진 및 도표)은 그대로 축소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② 그림(Figure)과 표(Table)의 일련번호는 그림 또는 표 1, 2, 3, ...으로 하며 그 제목과 설명은 국문 판의 경우에도 구문으로 할 수 있다.
- ③ 그림과 표의 크기는 저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④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 하단에, 표의 제목은 그 상단에 왼쪽 정렬로 기재한다. 표의 경우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
- ⑤ 그림과 표의 게재 위치는 필자가 해당 원고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한다.

제12조 (원고 제출 등)

- ① 논문과 단보(표, 그림 포함)는 원본과 사본 2부를 포함하여 총 3부를, 자료와 비평 및 서평은 원본과 사본 1부를 포함하여 총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과 단보를 제외한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나 내용상의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채택되지 않은 원고의 원본은 반환한다.
- ⑤ 인쇄시 초교는 필자가, 재교 이후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⑥ 인쇄된 분량이 국문판의 경우 10쪽, 영문판의 경우 12쪽을 초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수 인쇄를 할 경우에도 추가되는 경비를 필자가 부담한다.

⑦ 별쇄는 필자의 요청에 따라 20부 단위로 제공하며, 그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⑧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13조 (논문심사평가서)

- ① 학술지에 게재하려는 논문과 단보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심사 결과는(별지 서식)의 ‘논문심사평가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4조 (심사 절차)

- ① 1차 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2인을 위촉, 논문을 심사한다.
- ② 2차 심사: 1차 심사 결과 2인의 심사 내용이 상반될 경우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1인을 새로 위촉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심사위원 선정)

- ① 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 ② 1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상임심사위원(편집위원)에게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심사 기준과 판정)

- 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참신성
 - 나. 내용과 연구방법의 타당성
 - 다. 논리 전개 및 논문구성의 충실성
 - 라. 연구결과의 기여도
 - 마. 문장표현 및 편집상의 요건
- ② 심사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특히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심사의 익명성)

- ① 논문 및 단보의 심사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8조 (심사비)

- ① 논문이나 단보를 투고한 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한다.

제19조 (심사 결과의 처리)

-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논문 심사평가서)가 사본을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②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수정 완료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1차 심사 후 ‘논문심사결과처리표’의 기준에 의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④ ‘수정 후 재심’은 1회에 한하여 재심하며, 재심 결과의 ‘수정 후 재심’은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 ⑤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논문심사결과처리표

1차심사		2차심사 또는 재심	게재 여부 판정
1차심사 결과(1)	1차심사 결과(2)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심사 생략	(수정 후) 게재 함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함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함
		수정 후 재심	게재하지 않음
	게재 불가		게재하지 않음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재심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재심 결과에 ‘게재 불가’나 ‘수정 후 재심’이 있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음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심사 생략	게재하지 않음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6월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세계유산연구 투고 신청서

세계유산연구소

성 명	한 글	(한 문)	접수 일자	년 월 일
	영 문			
소 속				직위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팩스	
	E-mail			
제 목	한 글			
	영 문			
원고종류	논문, 단보, 자료, 비평, 서평			
원고매수	본문 ()매, 별도 제출시 그림 ()매, 표 ()매	희망 별쇄부수	()부	
발표여부	학술대회명: 발표장소:	일자: 20 년 월 일		
* 편집에 대한 요망사항				

공 동 투고자	성 명	한 글			
		영 문			
	연락처	직 장			
		직 위			
		전화번호			
		이 메 일			

• 투고 신청서와 논문은 journalworldheritage@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